

윤석열 대통령, 역대 최초로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갖고 현안사항 청취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5부 요인과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말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다 같이 밥을 같이 먹어야 하는 것 같다”며, “오늘 정부의 국정운영, 국회의 의견 등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들은 대통령에게 소관 분야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상임위원장의 건의를 잘 경청하고 일부 건의 등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한 상임위원장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질문하자 대통령은 R&D 예산 지출 조정 이유와 향후 확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상임위원장이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지도부를 포함해 미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오늘 상임위원장들을 다 뵙고 좋은 말씀을 경청했다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위원장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은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가 국정운영과 향후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회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회의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으며, 이런 만남을 정례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느 상임위원장이 “술 한 잔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저녁을 모시

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과 사랑재로 걸어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오찬을 시작하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사소통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라고 건배사를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라는 의미로 ‘소화제’라고 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최광수/기자

중국 현지서 관광객 유치 나선 김동연,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의 경기도 방문을 기대한다”

김동연 지사, 31일 ‘경기도-랴오닝성 관광협력 교류회’ 열어



한·중 관계 발전과 광역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현지에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오전 라오닝성 선양시 샹그릴라호텔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진귀웨이(靳桂衛) 라오닝성 부성장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랴오닝성 관광협력 교류회’를 열었다.

최근 중국이 단체관광을 재개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교류회는 양 지역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라오닝성 관광 콘텐츠 소개, 라오닝성 여행업계와 경기도 관광업계 비즈니스 상담회로 구성됐다. 경기도와 라오닝성의 공동 관광교류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에서는 에버랜드 리조트, 한국민속촌 등 18개 사 28명, 라오닝성에서는 요녕성국제여행사유한공사, 선양해외국제여행사유한공사 등 59개 사

92명이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랴오닝성을 이번엔 처음 방문했는데 불과 1시간 30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한국과 다른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 무척 좋았다”면서 “이번 관광교류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라오닝성의 더 많은 관광객들이 상호방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5천 년 역사 유산을 모두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역사가 어우러진 곳”이라며 “랴오닝성 관광객들의 한국과 경기도 방문을 기대하겠다. 오늘 공동교류회가 앞으로 또 다른 30년을 기약하는 상호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진귀웨이(靳桂衛) 라오닝성 부성장은 “관광산업이야말로 다른 산업과 다르게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분야로 라오닝성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광객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라며 “랴오닝성도 관광자원이 많다. 30주년을 기념해 앞으로 경기도와의 협력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관광교류회에 앞서 라오닝성 현지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와 라오닝성은 가장 오래된 우정을 유지한 지역”이라며 “관광을 비롯해 교역과 투자, 인적교류 등 경제에 우선순위를 둔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했으면 한다. 30년 우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이번 방문의 의미를 소개했다.

관광교류회에 참가한 가평베고니아 새정원 워킹맘 부장은 “중국이 개방되고 관광객 유치가 필요한 시기에 좋은 관광홍보 행사가 열렸다”면서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방문 중국인

은 103만 857명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방문객은 22만 1,63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1년 3만 9,660명, 2022년 4만 4,882명에 비해 큰 폭의 향상이지만 코로나19 직전인 60만 2,302명에 비하면 1/3수준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중국 최대 산업용 로봇·자동화 기업인 시아순(SIASUN, 新松機器人)을 방문해 중국 로봇산업의 발전 현황을 참관하고 양 지역 관련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시아순 관계자는 4천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시아순은 1,300여 건에 이르는 발명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 자동화, 의료용, 반도체용 로봇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둘러본 후 “시설이 매우 인상적이다. 한국과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협력관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30일 저녁 방중 첫 일정으로 선양 현지에 진출한 POSCO-CLPC, CJ바이오, 신한은행 등 8개 한국 기업 대표를 만나 한·중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내일(31일) 라오닝성 지도부와 면담 예정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건의해 달라며 외교 사절단의 역할을 자임했다.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선양에서 매년 열리는 ‘한국주간(한국 week) 행사’가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된다며 경기도의 지원과 참여를 제안했다. 라오닝성은 2002년부터 매년 ‘선양한국주간행사’를 개최하며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라오닝성의 의지가 충분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라오닝성은 상징적인 곳으로 의미가 크고 중국의 다른 자매결연·우호협력 성에도 영향이 갈 것이다. 한국주간행사 등에 대해서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북도, 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시작!

림피스킨병 전국적 확산에 따른 경북도
차단방역 비상

농림축산식품부

소 림피스킨병 예방백신 접종요령 및 주의사항

- 1 백신은 반드시 2~8°C에 보관하고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 2 사용하기 30분 전에 꺼내 실온에서 유지하고, 잘 흔들어 사용한다.
- 3 1두 1침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주사 시 접근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4 주사기 바늘 크기는 18G 또는 16G를 사용한다.
- 5 백신접종 전 동물은 가능한 안정을 시키고 주위를 조용하게 유지한다.
- 6 사용하는 백신의 용법 및 용량에 맞게 피하주사한다.
* 피하주사 요령: 소를 잘保定한 다음 한손으로 목 부위 피부를 들춰잡고 가축 밀에 45도 각도로 주사한다.
- 7 백신 효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기구를 화학적으로 살균하지 않도록 한다.
- 8 한번 개봉한 백신은 가급적 당일 사용한다.

경상북도는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소 림피스킨병 발생을 막기 위해 도내 전체 소 사육 농가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소 림피스킨병은 지난 19일 충남 서산 한 우농장에서 국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북도는 농식품부에서 배정한 긴급 백신 83만여 두분을 11월 1일 0시~06시 사이에 3회에 걸쳐 22개 시군에 공급한다.

백신을 인수한 시군에서는 읍면을 통해 농가로 전달하여 접종을 시작하며, 사육 규모에 따라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접종을 하고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사, 공무원, 축협 직원으로 구성된 백신접종단의 지원을 받아 접종하게 된다.

농가에서는 백신 인수 즉시 서둘러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과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른 피하 접종 및 접종 용량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백신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약 3주) 등을 고려할 때 림피스킨병의 안정화는 11월 말경으로 전망했다.

지난 19일 충남 서산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경북 도내 림피스킨병 발생은 없으며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14개 가축시장 폐쇄, 거점 소독시설(25개소) 및 공동방제단 운영 강화, 보건부서 협조를 통한 흡혈곤충 방제, 특별교부세 970백만 원 확보 및 시군 배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에 따른 발생사·도 소(생축) 반입금지 등 방역 조치를 통해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백신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인 3주 경과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소 사육 농가에서는 지속적인 소독과 침파리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고열, 식욕부진, 전신에 혹(결절)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해당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강진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

간호사 정주여건 개선으로 우수 인력
확보위해 기숙사 개소



전남도 강진의료원이 간호사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기숙사를 마련, 10월 31일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장, 차영수 의회운영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진의료원 간호사 기숙사 건축은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때부터였다.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주거 복지 보장과 우수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추진했다.

국비와 도비 30억 원씩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1천878㎡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2월 착공, 올해 9월 준공했

다. 원룸형 개인 숙소 60실과 공동세탁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일선 현장에서 바로 뛰는 의료인의 땀방울은 공공보건으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신속 기숙사 입소로 우수한 의료인의 정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의료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10개 진료과를 운영 중이다. 24시간 분반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응급실도 운영하는 것은 물론 ‘퇴원환자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오는 11월 시작되는 ‘찾아가는 건강지킴이버스’ 운영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배/기자

경북도의회, '경북혁신도시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과 경북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모색

경북도의회 '경북혁신도시발전연구회'는 29일 화요일 김천대학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경북혁신도시 개발계획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천대학교 윤경식 교수는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김천시 관계자들과의 집단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의 성공적 유치기반 마련과 경북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근 대표의원은 김천혁신도시가 아니라 경북혁신도시인 점을 강조하고 경북혁신도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



최병근 대표의원은 김천혁신도시가 아니라 경북혁신도시인 점을 강조하고 경북혁신도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고, 현재 이전

의 정책 발굴과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조용진 의원은 경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희망사항 중 하나인 자녀 의료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의료진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자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대해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북혁신도시발전연구회'는 최병근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진업, 김창혁, 정한석, 조용진, 허복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6월부터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내년 총선 이후로 예정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전략과 경북혁신도시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의회, 전기차 보급률 증대에 머리 맞댄다

'지역혁신·성장포럼' 대구시 의원연구단체 보고회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혁신·성장포럼'(대표 김정욱 의원)은 10월 30일 오전 11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단체 의원(대표 김정욱, 간사 박소영, 류종우, 황순자, 하병문, 이태순, 윤건근, 박종필, 허시영, 이영애, 김원규)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전기차 보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혁신·성장 포럼'은 11명의 대구시 의원으로 구성된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 해당 포럼은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성장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한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진과 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김수성 연구위원은 "대

구시의 전기차는 2023년 8월 기준, 28,336대이며 전기차 보급대수 전망 시 국가의 보급목표에 2030년 이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급확산 설문조사 결과, 전기차 구매 시 공용충전기의 보급과 세금 및 주차요금 감면, 구매보조금 등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며 "향후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한 단계별 제도 보완과 지원시설 확충, 전기차 중심의 교통여건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 제안자인 류종우 의원(북구1)은 "시민 설문과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전기차 보급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 제안자인 류종우 의원(북구1)은 "시민 설문과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전기차 보급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교육위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교육청 교권 침해 학생 일시 격리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교권 회복은 촘촘한 예방책 마련부터 출발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교육위원회)은 "경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텐션 룸(격리교실)과 딘(특별훈육교사)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교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에도 교사의 사명으로 감내해 왔는데 교육기관과 제도가 앞장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굵은 부분이 터진 것이 원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가 미봉책으로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안'을 고시하고, 국회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켜 교권 회복에 실험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교원

을 위협하는 요소는 존재하고 있다.

권 의원은 "보다 확실한 교원 보호 대책을 자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의 디텐션 룸(detention room, 격리교실)과 딘(dean, 특별훈육교사)제도를 소개하며 경북교육청이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디텐션 룸'은 한국어로 정학 또는 격리실로 해석되며, 문제행동 아동들을 별도로 지도하는 교실로 일반 교실과 분리되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종의 격리실이다.

'딘'은 특별훈육교사로 디텐션 룸으로 분리된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전담 인력이다. 문제행동에 대응·지도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로서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문제 학생

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기정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일반 교실에서 학생의 교권 침해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교과교사나 담임 교사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디텐션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가 디텐션을 결정하면 문제 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 디텐션 룸에서 특별 과제를 수행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제도이다.

권 의원은 "디텐션 룸과 딘 제도는 단순히 선진국의 정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며,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려 극단적 처벌이나 강압적 제도가 아닌 일종의 숙려제도로써 활용할 가치가 보인다"라며 "이번 교육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회복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며 선진적인



제도의 벤치마킹도 적극 권유해 교육현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서울시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로컬인 서울포럼'의 정책연구 성과 공유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1월 1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로컬인 서울포럼'에서 서울의 동네, 동네마다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로컬브랜드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진행한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로컬인 서울포럼'은 올 한해 동안 로컬브랜드상권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하고 로컬문화를 창출하여 도시 경쟁력의 근간이 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로컬브랜드상권 현장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와 연구자, 정책 담당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연구단체 '로컬인 서울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은 "아직까지는 로컬크리에이터와 상권기획자, 각 분야 전문가, 협력적 주민, 적극적 행정지원 등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요소가 정책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전문가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주체들의 참여를 담보하는 로컬브랜드상권 거버넌스 체계, 민간 기획자 협업을 위한 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상권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분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심의집행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내년 교육교부금 대폭 감소에 대응한 비효율적 지출형태 개선 한목소리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청 예산의 임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교육청 정태호 교육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12명을 소환, 교육청 예산의 임의사용 여부에 대한 2차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24일 개최한 1차 신문에서 교육청 전반의 비효율적 재정문제와 나뉘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조사특위는, 이번 회의에서도 행정 편의적인 예산 사용 문제와 이를 조장하는 제도상 허점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이번 조사특위 구성의 원인이었던 IB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청 전반에 퍼져있는 예산 원칙 무시 현상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양준모 의원은 "IB사업 추진과정은 마치 안갯속에 있는 거 같다. 4개교 시범학교 사업이, 의회와 학교에 사전설명 없이 12개교 연구학교 사업으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예산을 심의한 시의회와 공모에 참여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많은 실망

감을 줬다."면서 교육청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신뢰상실 과 예산 사전 심의, 의결을 무시한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으며 정태호 의원은 "교육청이 IB사업 몸집 확대에만 골몰하다가, 정작 중요한 한국어 라이선스 취득 등 핵심내용에 대한 세밀한 준비는 놓쳐, 예산 4억원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있다."면서, 교육청 행정의 근시안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반선호 의원은 "업무협약(MOC)이 중단된 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조치를 위해 IBO와 상의한 공문, 이메일이 하나도 없다. 올해 업무협약 관련 예산은 집행계획이 없고, 내년 업무협약 관련 예산은 편성조차 않고 있다."면서 행정사무조사 핑계로 손을 놓고 있는 교육청의 행정실태를 비판했다.

조사특위 김광명 위원장은 "무리한 사업확대로 중단 위기에 놓인 IB교육사업의 현상황을 조사특위와 연계하지 말라."며 교육청의 사고방식을 꼬집었다.

2016년부터 7년간 28억원을 투입해 온 교육중단연구사업이 올해 초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는, 문영

미 위원은 "주요 정책사업 종료를 결정하면서, 정상적인 서면결재와 용역 재심의도 거치지 않고 구두보고만으로 10년 장기사업을 마무리했다."면서 교육정책 연구소의 허술한 의사결정 방식을 비판했고, 정태호 의원은 "교육중단연구 성취도검사 문제지 개발용역에 매년 4천만원의 예산을 수도권 대학에 지급하면서, 정작 78개 문항 중 30%에 달하는 문제들이 전년도와 중복 출제됐다."면서, 용역사업에 대한 관리 부재로 지적 재산권 분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아침체인지사업 홍보를 위해 학생생활관 동파방지방비가 사용된 점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송우현 의원은 "학생들 출지 않게 해 달라고 지원한 생활관 동파방지 사업비 2천3백만원을 영등한 아침체인지 홍보를 위한 황톳길 조성사업에 사용했다."면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교육청 예산의 방만한 운영방식을 비판하면서, 예산 전용 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 외, 교육청 행사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주문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성현달 의원은 "최근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유도대회에서 대회 운영 미숙으로 대진표가 새로 짜여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안다."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교육청 행정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윤태한 의원은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중 학교요케스트라 운영과 관련, 예산편성을 위한 기자재 실태조사와 정산결과

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2차에 걸친 증인조사를 마무리하면서, 김광명 조사특위 위원장은 "각 지방교육청이 내년도 교육교부금 대폭 감소와 고정지출 증가로 교육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마당에,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없이 지적사항 면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낭비성, 행사성 사업과 검증되지 않은 공약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효율적 지출형태를 바로잡기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를 위해 조사특위에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시 교육청 내부의 예산 사전절차 정립과 2조원에 달하는 교육청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감사원은 각 지방교육청이 나눠 주기식 현금, 복지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으며, 이에 재정당국과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전체 유, 초, 중등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7조1천억원 삭감하기로 해,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에 대한 내외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시교육청의 예산심의집행여부 규명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1일 구성돼 올해 12월 29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증인 신문 조사와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내·외부 전문가 등과의 확인 및 협의 등을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오는 12월 본회의 시에 채택할 계획이다.

김희태/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치부:대선(112) 사회부:대선(113) 경제부:대선(114) 스포츠부:대선(115)
문화부:대선(116) 부동산부:대선(117) 오피니언부:대선(118) 지방부:대선(119)

경기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 2024년도 道·道교육청 예산(안)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 가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30일~10월31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선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의 예산 사전설명회보다 시간을 배로 늘리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좀더 심도있는 회의를 하자.”는 말과 함께 “경기체제와 높은 물가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지자체로서 그 어느때보다 경기도의 예산정책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우리 예결특위는 예산사업 하나 하나를 심사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경기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는 10월30일~10월31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1일차 경기도청 사전설명회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획일적인 도비보조를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 대책 등을 주문하고, ▽기회소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등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2일차 경기도교육청 사전설명회에서는 2023년 대비 예산규모가 감소한 사유와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다양하게 주문했다.

한편, 2024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평택시 KG모빌리티 공장 이전 문제 해결 의지 밝혀



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평택6)이 좌장을 맡은 '첨단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가 10월 30일 평택시 평생융합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 의원은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첨단모빌리티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함께 평성읍이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세계모빌리티 시장 동향분석 및 경기도의 첨단모빌리티 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과제와 평택시 모빌리티 육성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미래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점산 경기연구원 기획본부장,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과장, 황성식 평택시 미래전략과 과장, 이금주 KG모빌리티노조 부위원장, 이동훈 (사)평택시발전협의회 회장 등 5명의 토론자는 첨단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앵커기업의 중요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관해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끝으로, 김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첨단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숙원사업인 ‘KG모빌리티 공장 이전’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볼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복원 해체·보수 2년 만에 완료. 11월 1일 개방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남한산성 복원 해체·보수공사 완료로 11월 1일부터 남한산성 복원을 개방한다.

남한산성에 있는 사대문 중 하나인 남한산성 북문은 1624년(인조 2) 신축됐다. 1637년(인조 15) 병자호란 당시, 조선군들이 북문을 나서 청군을 기습공격한 후 패한 ‘범화골 전투’의 아픔이 있어 1779년(정조 3) 개축하면서 다시는 전쟁에서 패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전승문(全勝門)이라 이름 붙였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파괴됐던 문은 1979년 남한산성 보수정화 사업으로 새롭게 복원했지만, 점차 성문에 균열이 생기고 문루(門樓, 성문 위의 누각)가 기울어지는 등 문화유산과 탐방객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2021년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한산성 북문과

문루의 전면 해체·보수에 착수했다.

이번 공사는 가로 25m, 높이 6m의 성벽을 포함해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문루를 동시에 해체·보수한 드문 사례에 속한다.

또한, 충실한 원형복원과 고증을 위한 발굴조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남한산성 복원의 원형을 복원하고자 노력한 결과, 세계유산으로서의 남한산성의 진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천광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남한산성 복원 해체·보수가 완료돼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탐방객들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유산에 걸맞은 남한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조례 개정 박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31일 경기도 광주시 일대 친환경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를 위한 정책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근래 환경오염 및 미세플라스틱 등과 관련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정책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양·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1997년 ‘친환경농어업법’을 제정하고, 친환경농어업을 육성해 온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기술개발 및 시설 지원, 가공·유통 지원, 전문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육성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날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의 토마토, 아욱 재배 농장과 딸기 재배 농장을 찾아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운영 중인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이문부 친환경농업과장과 광주시 김민수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하여, 친환경농어업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함께 했다.

두 농장은 에너지 절감형 농업방식시설

이나 시설채소보관등을 이용한 재배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곳으로, 농업난방을 화석에너지에서 저탄소에너지인 전기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저탄소 농업 구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인공광을 이용한 보광재배는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 광합성 또는 생장을 촉진해 생산력을 높일 수 있어 북유럽이나 북미 등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방성환 의원은 “근래 농어업 폐기를 등으로 인한 농어촌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며,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방 의원은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 보전 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지원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도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 현장에서도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ESG 경영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성환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및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를 통합하고,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위한 관계자 정담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30일 파주상담소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사람과세상 주태규 이사장은 “사람과세상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창출을 지원해 온 사회적경제 전문 역량을 가진 조직이지만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재정지원 종결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 기업의 통합지원을 담당해 온 공동체로서 민간이 맡아야 적합한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윤지훈 전략기획팀장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사업도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으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 기업이 갖는 공공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취약계

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전체 사업의 긍정적인 취지를 간과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발굴과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관련 조직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결과지 제도들은 버리고, 각자 본인의 기능에 충실하고 집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과세상도 다양한 고민을 통해 자체 혁신을 위한 기회로 삼아 변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토론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11월 의원연구단체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31일 경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유영일 위원장, “지역구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예산확보 협의 가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구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관련으로 예산법무과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노후화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방범 CCTV 스마트 보안시설 설치사업, 안양어린이도서관 환경개선사업 등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의 주민복지와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해에 비해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예산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여 공공행정 서비스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2023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서밋서 아태지역 부문 '디지털혁신특별상' 수상 쾌거

아태 지역 국가들과 경합, 국내 유일 수상자 선정

수원시가 국내 '2023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에서 '디지털혁신특별상'을 수상한 데 이어, 아태지역 부문에서도 국내 참가기관 중 유일하게 '디지털혁신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원시가 31일 싱가포르 선택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서밋'에서 '디지털혁신특별상' 부문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7회를 맞는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조사업체 IDC 기관이 지속 가능한 운영전략으로 비즈니스 혁신에 두각을 나타낸 기관을 수상하는 행사다.

지난 17일 열린 '2023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에서 수상한



국내 기관들인 수원시, KT, LG유플러스, 두산그룹, 롯데카드, 야놀자, 위드 등은 이날 열린 본선에 진출해 아태 지역 국가들과 경합을 벌였다.

수원시는 국내 참가자 중 유일하게 아태지역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통합업무모델인 '공공기관 통합업무 시스템'을 구축, 산하 공공기관 13곳에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디지털혁신특별상 부문 아태지역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2021년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인사, 급여, 복무로 업무를 확대했다. 올해는 전자문서, 업무포털, 웹메일, 메신저 등 그룹웨어를 구축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사업이 국내 수상에 이어 아태지역에서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수원시 통합업무시스템이 다른 기관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전국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 유치

화성시, 전국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 유치로 '시민 중심의 안전한 미래교통 체계 구축'

화성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740억원을 유치했다.

이번 리빙랩 사업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시 공간에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가상 자율주행 환경,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등 자율주행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자율주행 체험 기회를 제공해 실제 상용화의 기반을 다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남양읍을 중심으로, 송산·새솔·마도·서산·동탄2 지역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 대

중교통서비스, 도로 유지관리, 긴급출동 및 도로 통제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미래교통 체계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리빙랩 실증 일정과 맞물리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송산그린시티, 동탄 트램 등의 도시개발과 연계해 자율주행 실증 이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는 물론 향후 해외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유치는 시민 중심의 안전한 미래교통체계의 시작"이라며, "화성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모빌리티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고양특례시, 제2회 '2023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DMTS)' 개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디지털콘텐츠와 첨단기술의 현재와 미래 조망하는 융복합쇼

2023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Digital Media Tech Show, DMTS)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4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인 디지털콘텐츠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융복합 쇼다.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는 경기도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주최하고 킨텍스, 고양산업진흥원,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며 과기부에서 후원한다.

지난해 열린 2022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에는 153개 참가 기업이 419개 부스를 운영하고 24개국 구매자(바이어)들이 참여했다. 구매 상담회와 수출 상담회를 통해 창출한 수익은 국내외 총상당액 207억 원과 계약 추진액 121억 원에 이른다.

전시 분야는 콘텐츠 생성과 강화 및 확장, 유튜브, 가치화 체인에 해당하는 ▲스마트테크 ▲미디어 콘텐츠테크 ▲확장현실(XR) 및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대체

불가능토큰(NFT) 및 블록체인이다.

한편, 같은 기간,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퓨처쇼(Digital Future Show)'와 콘텐츠의 제작과 활용을 다루는 '콘텐츠 코리아(Contents Korea)'가 각각 5홀과 3홀에서 열린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는 유관 산업 전시회가 국내외 구매자(바이어)의 결집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를 원하는 참가객은 공식 누리집에서 11월 1일까지 무료 온라인 사전등록을 한 뒤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출입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는 방송 영상, 콘텐츠, 드론 등 4차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가 우수 기업들의 협력망을 강화하고 국내외 첨단 기업이 모이는 중심지로 고양시가 주목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안양시, 관내 외국인 대학생 '헬로 안양 팸투어' 진행

30~31일 10개국 32명 참여... APAP7·스마트도시통합센터·안양양궁장 등 방문



안양시는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3 Hello, Anyang! 팸투어'를 진행했다.

30일부터 31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투어에는 안양대·성결대·대림대에 재학 중인 10개국 32명의 유학생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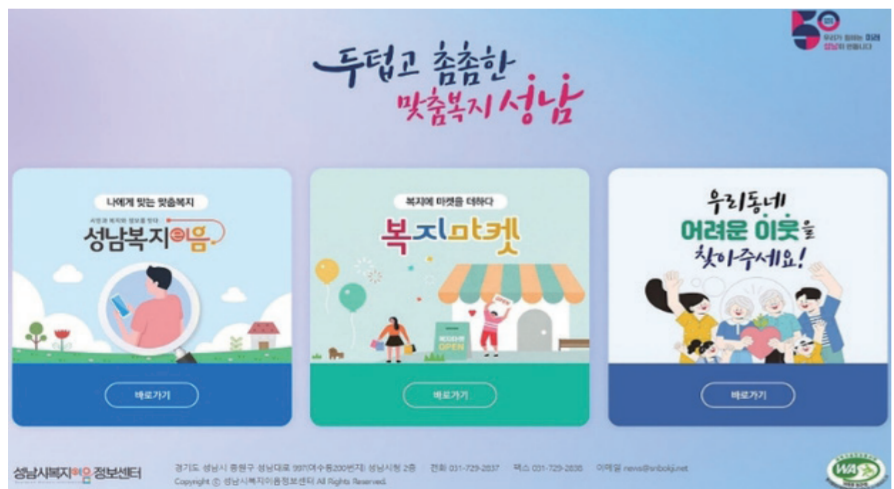
'Hello, Anyang! 팸투어'는 외국인 대학생들이 안양시의 다양한 명소를 체험하도록 하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양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6년 시작돼 올해 6회째를 맞는다.

이번 투어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안양 예술공원 도예공방의 도자기 빚기와 안양시에정교육관의 다도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했다.

신우용/기자

성남시, 지자체 첫 사회복지시설 생산품 홍보 '복지마켓' 개설

22곳 시설 생산품 260개 한눈에...판매 활성화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생산품을 홍보하는 플랫폼 '복지마켓'을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려고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다. 복지마켓은 중증장애인·노인일자리·자활·청소년시설 등 모두 22개 사회복지시설의 판매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했다.

시설별 사무용품, 생활용품, 식품, 인쇄·판촉물, 복합기·인크·토너, 세척·세탁·세차 등 6개 분야의 260개 상품 정

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복지마켓 사이트는 성남시가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성남복지이음'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4개월간 시설별 상품 이미지 구축과 시설소개 페이지 제작, 사이트 연계 작업을 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남시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의미 있는 소비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다.가.치. 1박 2일' 진행



광주시 가족센터는 지난 28일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외갓집체험마을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

계 향상 프로그램인 '다.가.치.(다문화 가족의 Cheer up!) 1박 2일'을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다.가.치. 1박 2일'은 관내 다문화가족 14가족 40명이 참여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놀이(제기차기, 딱지치기, 뽕짚으로 줄넘기 만들어 대결하기)와 전통음식체험(떡볶이, 감자전 부치기)으로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부모, 자녀 외에도 다른 참여가족,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며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족은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오영희 센터장은 "모든 일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참여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안산시 성호박물관, 문화기획학교 '청년 성호, 길을 나서다' 개최



2023 성호박물관 문화기획학교 연수

청년 성호, 길을 나서다

일시 2023. 11. 10.(금)~11. 11.(토), 1박2일

대상 성인 40명 ※선착순 마감

- 성호박물관 교육생(강학희, 고진강득, 문화기획학교, 절기교육 등)
- 성호 이력의 삶에 공감하고 자신을 길을 찾고자 노력하는 안산시민
- ※성호박물관 관람 인증 후 신청 가능

내용 청년 성호가 찾아간 길을 함께 걸으며 삶을 돌아보는 과정

신청방법 안산시통합예약관리시스템

문의 031-481-3042

신용카드 결제 가능

안산시 성호박물관은 내달 10일부터 11일까지 문화기획학교 연수 '청년 성호, 길을 나서다'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1709년 청년 성호 이력이 청량산, 도산서원, 백운동서원을 방문하고 남긴 기록을 따라 답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의 선생의 삶을 소개하고 그가 다녀간 장소들을 실제로 방문하며 성호의 학문 여정을 체험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한국국학진흥원과 연계해 청년 성호의 주요 행적을 따라 청량산, 도산서원, 소수서원을 답사한다. 방문 장소마다 성호 이력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글을 쓰는 활동도 가질 예정이다.

신청은 성호박물관 교육생 및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선착순 40명을 접수 받는다.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성호 이의 선생의 행적을 따라 함께 걸으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용인특례시, 육상 간판 우상혁 제61회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수상

이상일 시장, "수상 축하...우상혁 선수의 긍정 에너지와 도전정신이 용인은 물론 나라 전체에 퍼지길 희망"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제61회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용인특례시는 31일 제61회 스포츠의 날(10월15일)을 기념해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61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우상혁 선수가 경기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체육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거나, 헌신적으로 노력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체육상으로 경기상, 선수상, 지도상, 공로상 등 총 9개 부문에 대해 시상한다.

우상혁은 한국 높이뛰기를 대표하는 스타로 대한민국 육상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25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고, 이후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서 2m 35를 가뿐히 넘으며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정상에 올랐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2m 33을 기록하며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이어 2회 연속 은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18일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높이뛰기 결승에선 2m 32로 대회 신기록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고 2023년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우 선수는 특히 경기마다 밝고 긍정적인 표정으로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스마일 점퍼'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와 뛰어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는 등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우 선수의 경기상 수상 소식을 들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우상혁 선수의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수상을 110만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스마일 점퍼'로 불리는 우상혁 선수가 보여주는 긍정 에너지와 도전정신이 용인은 물론 나라 전체에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상혁 선수가 내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대한민국과 용인을 빛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혁 선수는 당분간 국내에서 훈련과 휴식을 가진 후 11월 말부터 국외전지훈련에 돌입, 파리올림픽과 2024년 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의정부미술도서관 시 승격 60주년 기념 '마주하다'展 개막식 개최



의정부시는 10월 30일 미술도서관 전시관에서 시 승격 60주년 기념 '마주하다' 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김동근 시장, 최영희 국회의원, 최정희 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과 주요 기관장 및 지역작가 등이 참석했다.

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의정부시의 문화예술 자산과 지역작가들의 시선이 담긴 기억, 환경, 경험 등에 대한 현대미술 작품들로 구성됐다. 의정부를 매개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마주할 수 있는 전시로서 시 승격 60주년에 대한 의미를 고찰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의정부시의 문화예술 자산인 백영수 작가의 의정부 정착 후 회화작품 ▲김현주, 조광희 작가가 의정부 시민들의 '손'을 주제로 촬영한 영상작품 ▲앤드리 작가의 유년 시절부터 의정부에서의 기억을 담은 설치작품 ▲정혜연 작가의 회화작품 ▲김윤하 작가가 의정부시 행정구역울 둘러보고 그 안의 삶의 흔적을 찾아 기록한 영상 및 설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내년 2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시해설은 휴관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운영된다.

박영애 도서관장은 "시 승격 60주년에 걸맞은 수준 높은 전시를 통해 의정부시에 대해 시민들과 담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깊어가는 가을, 일상의 선물 같은 미술도서관에서 예술적 깊이를 느끼며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확대 발행...“국·도비 추가예산 확보”

-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화폐 '하머니' 확대발행 추진
- 국·도비 추가예산 확보해 3회 추경에 56억원 편성



11월 지역사랑상품권(하머니) 7% 할인, 충전한도 70만원

카드발급 및 충전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관내 농협·MG하남새마을금고 신협·축협·중부농협·통영수협·인산농협 방문

기간 2023. 11. 1.(수) ~ 11. 30.(목)

문의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 031-790-6197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초과 가맹점 하머니 사용제한 (시행일:10/5~)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국·도비 추가예산을 확보해 어려운재정 여건 속에서도 3회 추경에 관련 예산 56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31일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지위 상설로 불거진 지역화폐 사업 축소 우려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하머니' 충전 한도 월 20만원, 할인율 6%였던 인센티브를 남은 11~12월에는 충전 한도 70만원, 할인율 7%로 확대 발행을 추진하고 당초 목표발행액인 1,082억원보다 814억원이 추가된 총 1,896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여주시의회, "여주관광 여기어때?" 제10회 의정포럼 개최

여주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명성황후 생가 문예관에서 여주시 관광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여주관광 여기어때?" 제10회 의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여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여주시관광협회의회가 주관하여 시의원, 공무원, 관광산업 종사자,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 관광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기조발제자로 나선 신세계사이언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박태호 마케팅팀장은 최근 mz세대 여행지 선호 트렌드를 파악하여 여주쌍을 활용한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 한복체험, 촌강스 등 mz세대 맞춤형 콘텐츠와 sns 바이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여주대학교 이상남 교수는 인공지능 ChatGPT를 활용한 여주시 관광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답변 사례를 통해 지역 특산물 연계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순열 이사장은 여주 관광산업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여 여주 특화관광 콘텐츠 발굴, 여주시 관광활성화 및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관광 공모사업 유치계획 및 여주시 중장기 관광전략 수립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여주시관광협회의회 방미정 이사장은 여주시 관광발전을 위한 협의회 역할 및 수행업무에 대하여 설명했고, 캠핑족·속박여행객을 위한 체류형 관광산업 및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정병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여주시 관광 발전에 대한 모색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여주시 관광진흥 및 활성화 방안의 모색은 물론 시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성숙한 의회정치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주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김범상/기자



이천시, 2023년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 교육 두번째 개최



이천시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일시 2023. 11. 2.(목) 14:00 ~ 18:00 장소 이천시청 1층 소수농민아강

이천시는 11월 2일 오후2시에 이천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이천시청 소수농민아강에서 생산자교육을 한다.

교육 주제는 로컬푸드 발전방향 ((주)휴앤비 임숙희)과 이천로컬푸드 농산물 유통을 다룰 것으로, 실질적인 이천로컬푸드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관리자의 입장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을 주관하는 농업진흥과(과장 정현숙)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많은 관계자의 노력으로, 우리 이천시 농업 유통구조 중 또 하나의 획이 되어 주고 있다. 직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매구조를 제공하고, 푸드마일리지(food mileage, 식량수송거리)의 단축으로 2050탄소중립에 앞장서는 목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매년 2회 이상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이수 필수적이며, 모두 농산물안전검사서에서 모든 검사항목이 적합하다는 성적서가 있어야 납품이 가능하다.

김범상/기자

구례 주민들이 밭 벗고 나섰다. 구례양수발전소 유튜브 영상 화제!

“양수 is 구례” 유튜브에서 “양수리 전원일기”를 검색하세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구례군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출연한 홍보영상에 제작돼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은 '양수리'라는 가상의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출연한 이번 영상은 양수발전소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유치 염원을 담은 탄탄한 스토리와 마을 어르신들의 연기가 더해져 주목받고 있다. 영상은 '양수리'라는 가상의 마을에서 양수발전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 기후 온난화에 따른 양수발전소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유치 염원을 담았다. 영상에 직접 출연한 정만수 유치위원장은 “양수발전소는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저장장치로서 기후 온난화 대응과 구례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며, “완공까지 10년이 걸리지만 문턱만 주민들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양수발전소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에는 “어르신들이 영상까지 찍다니 구례에 꼭 유치됐으면 좋겠다”, “배우해도 될 정도로 너무 연기 잘하신다”, “어르신들 바람대로 꼭 유치되길 응원한다” 등 150개 이상의 응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24차례의 주민설명회와 견학을 추진한 결과 양수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유치 의사가 매우 높으며 문턱만 주민 100여 명의 문턱만 양수발전소 유치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구례군민과 향우 등으로 이뤄진 3,000여 명의 유치 서포터즈가 적극적인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영상도 구례양수발전소 유치를 염원하는 문턱만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됐으며 구례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현/기자

보성군, 대한민국 국가대표 명품 ‘보성키위’ 본격 출하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키위의 고장 보성

보성군은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1호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보성키위가 수확철을 맞이해 본격 출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40년 이상의 키위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약 260ha의 면적에서 연간 4,500톤가량의 키위를 생산해 내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키위의 대표 주산지이다. 특량만의 해풍과 연중 햇살 가득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보성키위는 친환경 신개념 농법인 스테비아농법 등을 사용해 여느 키위보다 높은 당도와 저장성을 자랑한다. 키위 주산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보성키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GAP 인증을 획득해 생산단계에서 판매 단계까지 철저히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국 최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지리적표시 제111호’로 등록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키위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적인 키위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키위는 식이섬유로 꽉 찬 영양덩어리 과일로서 최근 다이어트 과일의 대명사로 각광받고 있으며 비타민, 엽산, 칼슘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고 면역력 증강 효과가 높아 성장기 어린이나 임신부에게 특히 좋은 과일이다.

최원영/기자



전남도,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인력양성 첫발

아시아·태평양 외국인 교육생, 백신산업특구서 현장교육

전라남도가 지난 7월 세계보건기구(WHO) 인력양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지정에 이어 10월 31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인력양성 현장교육에 참여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첫 발을 내디뎠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지원하는 아시아 중·저소득국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연세대 한국형 나이버트 사업단(K-NIBRT)에서 주관하고 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7개국 34명에게 바이오 생산공정 이론 및 실습교육(5주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교육은 화순 백신산업특구에서 3일 동안 이뤄진다. 전남 생물의약연구센터,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GC녹십자 등 바이오·백신의약품 생산시설 운영 실습교육뿐만 아니라,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학교 의생명연구원,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등 의료·연구기관도 방문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전남이 보건복지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로 지정된 후 처음 실시하는 외국인 시범교육이다. 전남은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 GMP) 인증을 받은 생산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관리, 인증, 해외규제

등 바이오의약품 전주기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실습교육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연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은 “국내 유일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받고 연구개발, 전임상, 임상, 생산 등 전주기 기반시설을 보유한 전남에서 생산·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전남이 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도록, 명실상부한 국내의 바이오 인력 양성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전담기관인 전남 생물의약연구센터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전문 인력양성센터(실습장 3개소)를 2024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연간 바이오 인력 1천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교육생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호텔급 기숙사 ‘바이오게스트하우스’ 건립(2025년 준공 예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목포, 서남을 넘어 호남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를 말한다.

목포문화도시센터는 지난 10월 28일 목포문화도시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문화도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문화도시 컨퍼런스는 목포 문화예술의 비전을 토론하고 문화도시 가치 확산을 목표로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및 문화도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진행했다.

제1부에선 ‘목포 문화예술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문학, 미술, 무용, 음악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하여 목포 문화예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지호 목포문화도시센터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고필 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컨퍼런스를 이어갔다. 김중경 조선대학교 화학학과 교수의 ‘한국 근현대 한국화의 동향’ 기초 발표를 비롯해 김선태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목포문학의 현주소와 발전방안’, 박종임 동신대학교 공연예술무용학과 교수의 ‘예술적 꿈을 실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예술 도시로의 발전’, 문안나 유달오페라단 대표의 ‘예향의 도시 목포, 목포음악의 발전 방향과 비전’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제2부에선 ‘문화로 지역을 말한다’를 주제로 익산, 완주, 목포 등 호남권 문화도시와 신안, 해남, 영암 등 서남권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모여 호남권 문화도시 교류 확장을 위한 지역 연계의 문화도시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는 로컬리더에이터, 문화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이찬술 목포 문화도시 스피크 대표의 ‘로컬 콘텐츠로 지역을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 한송지 완주문화도시 유희회사 위시아트랩 대표의 ‘예술인으로 지역에서 살아남기’, 서진욱 익산문화도시 보석문화팀장의 ‘귀금속보석산업과 문화도시의 연결’, 김여송 영암곤충박물관 부관장의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에코 뮤지엄’, 김근하 신안군 문화도시 지원센터 사무국장의 ‘1000개의 섬, 1000개의 섬문화’, 차재웅 해남군 지



역문화 협력추진 지원사업 추진단장’해남, 마을에 문화를 피우다’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목포문화도시 이지호 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앞으로 예상 목포의 다양하고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배/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 폐막, ‘더 높고 새로운 순천’ 개막!

980만 관람객 모여 정원열풍 일으킨 정원박람회, 31일 공식 폐막 선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214일간의 긴 여정을 마쳤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는 31일 오전그린광장에서 ‘새로운 시작 The 높게’라는 주제로 폐막식을 열고 폐막을 선언했다.

행사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관기관, 박람회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어느 때보다 시민 참여가 빛났던 이번 박람회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 조직위는 공식 폐막행사에 앞서 순천시와 함께 ‘시민한마당’ 행사를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도 했다.

폐막식은 치어리딩과 가수단 입장으로 막을 열고, 카드섹션과 폭죽 세리머니, 214일간의 여정을 담은 영상 상영, 축사와 폐회사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가수단 퍼레이드에서는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애너지를 모았던 자원봉사자, 일류플래너, 조직위 직원 등 250여 명이 함께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감

동을 더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정원박람회로 순천과 전남의 이름이 세계 속에 빛나 해였다. 순천은 지역이 가진 매력과 경쟁력이 대한민국 넘어 세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음을 잊지게 보여주고, 빛나는 지방시대에 큰 획을 그었다”라면서 “정원에 애니메이션을 입히려는 순천시의 혁신적인 도전에도 힘을 모으겠다. 다시 한번 정원박람회 성공을 축하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원박람회를 지원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원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산림청장으로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대한민국이 날마다 정원 문화에 흠뻑 빠지고 정원과 함께 치유되는 그날까지 정원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정원박람회를 총괄해 온 노관규 이사장은 축사에 앞서 시민들 앞에 큰절을 올린 후 폐회사를 낭독했다. 노 시장은

“지난 214일은 순천이 정원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대한민국 전체가 순천에 열광한 똑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정원을 찾은 980만 관람객, 순천시민들이 끝내주게 행복했다고 한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라면서 공직자, 종사자,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박람회를 지원한 순천시의회, 전남도, 산림청과 정부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순천은 이제 214일의 기간, 980만의 관람객, 333억 원의 수익금 같은 숫자는 역사에 남겨두고,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하려 한다”라면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폐막 선언을 선언함과 동시에 ‘더 높고 더 새로운 순천’의 개막을 선언했다.

이로써 공식 폐막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올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4일간 치러졌다. 정원을 도심까지 끌어들이는 속도 3만불 시대 맑고 밝은 녹색도시의 모델을 제시한 이번 행사는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넘어 최종 980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또한 510개 이상의 기관·단체(지자체 200여 곳)의 견학·벤치마킹에 이어 ‘정원열풍’을 불러오는 등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새롭게 쓰고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행사였다고 평가받는다.

한편 조직위는 정원박람회를 향한 성원에 보답하고, 더욱 아름답게 물든 가을 정원의 풍경을 국민께 선물하기 위해 폐막 직후인 11월 1일부터 5일까지(9시~18시 운영) 박람회장 전 구역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승준/기자

남원농업대학 드론농기계반 울릉도 졸업여행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지난 25일에 명품농업대학 드론농기계반 25명을 대상으로 울릉도에서 2박3일 졸업여행 및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드론농기계반은 이번 졸업여행 및 현장 교육을 통해 울릉도에 위치한 울릉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특산품 전시관, 전통 시장 등을 방문해 견학하고 독도의 역사, 문화, 생태를 직접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반대표)은 “이번 졸업여행으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어 정말 좋은 추억이 됐고, 또 울릉도와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고인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업에 지친 교육생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좋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전북도, 2023 익산농업기계박람회서 전북홍보관 운영

기업유치 상담실 및 도정 홍보관 운영

전북도가 31일부터 4일간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하는 '2023 익산농업기계박람회' 참가해 전북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 익산농업기계박람회'는 익산시가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로 2019년 이후 전북에서 처음 개최하는 농업기계 산업 최대 박람회이자 지역축제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200개 농업기계 업체가 참여해 첨단농기계 및 농기자재 종합전시를 통해 농기계 판매 추진 및 스마트 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게 된다.

부대행사로 세미나, 연시장 운영, 먹거리 장터, 경품지원 이벤트를 실시해 참관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전북도는 이번 전시회에 홍보부스 2개를 마련해 기업유치 상담을 진행하고, 핵심 요소 부품 시험·연구 구축 장



비 등의 시연을 통해 농기계 산업 혁신 역량 및 인프라 소개 및 도정홍보를 추진한다. 홍보부스 내에 기업유치상담실을 운영한다.

영해 도내 이전에 관심있는 기업들에 입주 여건, 보조 혜택 등 맞춤형 상담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나서고, 도의 농업기계 산업 정책 홍보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제, 전북관광안내 등 다양한 도정 소식도 안내한다.

또한, 도내 기업의 전화화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자 전북테크노파크와 협력해 공동활용 장비 보유 현황을 소개하고 신규 구축 장비인 3D스캐너를 시연한다.

오랫동안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은 농기계 산업 메카인도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에 가까이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도는 농업기계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다양한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제73주기 함평양민 집단학살사건 합동추모식 거행



31일 전남 함평군은 "월야면 달맞이공원 내 함평사건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사단법인 함평사건희생자 유족회 주최로 제73주기 함평양민 집단학살사건 희생자 1,612위의 합동추모식을 지난 30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윤영량 함평군의회 의장, 모정환 전남도의원, 김명곤 광주트라우마센터장, 군의원 및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죽문 낭독, 헌화 및 헌주, 추도사,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역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정근욱 회장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며 "국가에서 유족들에게 배·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등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모든 희생자가 진실규명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평양민 집단학살사건은 1950년 12월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3개 면에서 국군에 의해 죄 없는 양민들이 무참히 희생당한 사건이다. 김영진/기자

감동과 전율의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 ... 의향 나주 정신 일깨웠다

나주시, 제29회 시민의 날 기념식 30일 나주문예회관서 개최



올해로 스물아홉 번째 생일을 맞은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이 단순 행사를 넘어 감동과 전율의 무대로 나주시민들의 의로운 정신을 일깨웠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전날 오전 10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과 출향 향우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념식은 '학생이 열었던 독립의 길, 시민과 열었던 일산강 시대'라는 주제로 다양한 기념 공연과 각종 시상식, 축하 행사를 통해 12만 시민의 화합과 우애를 다졌다.

이날 주인공인 시민과 더불어 기념식

주제로 한 편의 뮤지컬을 연상케 하는 강렬한 배경 음악과 영상,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다이나믹한 태권도 공연을 통해 감동과 전율을 선사했다.

1929년 10월 30일 옛 나주역에서 발발한 나주학생항일운동을 배경으로 태극기를 양손에 쥔 배우들이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칠 때마다 시민들은 박수갈채와 환호로 응답하며 의향 나주 정신을 함께 되새겼다.

공연에 이어 민선 8기 시정 비전을 담은 기념 영상 상영과 기념사 및 축사, 축하 메시지, 시민헌장 낭독, 시상식 등 기념식 본 행사가 진행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념사에서 "나주는 호남의 중심으로 의병 활동과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등 국난극복의 선봉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역경에 맞서 대동단결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던 나주 정신은 이제 나주를 상징하는 빛나는 영상강 시대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나주는 호남 역사 속 가장 뿌리깊은 나무이자 호남에서 가장 미래가 희망찬 도시"라며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나주를 위해 고생한 어르신과 영상강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농업인의 땀방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철 한전사장은 "한전이 나주에 동지를 틈 지난 10년간 일궈왔던 에너지밸리 2.0시대를 열어 더 많은 기

업을 유치하고 나주시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나주시민들과 한 지붕 한 가족, 이웃이 되는 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이끌어 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나주 출신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 나주 명예시민인 미국 메릴랜드주 래리 호건 전 주지사·유미호건 여사, 전성수 서울서초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등 국내외 교류도시 단체장 등이 영상을 통해 시민의 날을 축하했다.

무대에선 효행상 등 분야별 유공 시민들과 시민의 날 주간 문예창작대회 입상 학생 등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축하 공연으로 기념식의 대미를 장식한 '미술공연'은 개식 공연에 이어 관객들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을 안겼다.

3명의 아티스트가 3장의 도화지에 각각 스케치를 한 후 조명이 비추지자 '500만 관광도시', '에너지중심도시', '명품교육도시' 등 나주시 주요 비전인 담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나타내면서 관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빛가람동 시민 이 모 씨는 "매년 기념식에 참석해왔는데 올해는 왜 10월 30일이 나주시민의 날인지, 의향 나주의 정체성을 확연히 느끼고 나주 정신을 일깨우는 기회가 됐다"며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

모든 식순이 종료된 후 12만 나주시민들은 '시민의 노래'를 모두가 함께 합창하며 서로의 안녕을 기원했다. 김영안/기자

진도군보건의소, 아동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오는 12월 초까지...4개 학교 1~2학년 54명의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진도군보건의소가 성장기 아동비만 예방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비만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프로그램은 아동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춘 스티커 북 등 아동용 학습교재 6종을 활용한 놀이형 영양교육과 전통놀이와 협동놀이 등의 활동형 신체활동 교육으로 구성된다.

또한 관내 금성초, 의신초, 진도서초,

고성초 등 4개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54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운영한다.

특히 놀이형 영양교육은 아동이 싫어하는 채소에 친근감을 형성하고 미각 체험, 건강한 영양 간식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으로 채소에 거부감을 가지는 아동들에게도 호응도가 높다.

진도군보건의소 관계자는 "자라나는 성장기의 아동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아동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제36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완도군에서 개최, 대회기 인수

'제35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제36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인 완도군은 제35회 대축전 폐회식에서 참석해 김현철 완도부군수가 유현호 순천시시장으로부터 대회기를 전달받았다.

대회기 인수와 더불어 홍보 영상 상영을 통해 제36회 대축전이 완도에서 개최됨과 완도군의 역할을 알렸다.

김현철 완도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제36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전남도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

"내년에는 해양치유산업 중심지 완도에서 만나요!"

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완도군에서 역점 육성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이 스포츠 재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전남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제36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35회 대회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지난 5월에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은 제35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 22개 종목, 324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특히 완도군체육회 최경철 회장은 22개 시·군 회장단 중 유일하게 선수들과 테니스 종목에 출전해 하나된 체육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공동 3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거듭되었다.

그 외에도 소프트 테니스 3위, 합기도 3위 등 여러 종목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22개 시·군 노래자랑에서는 군 대표



로 참가한 완도군체육회 이승희 지도자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양영울/기자



전남 화순군은 10월 31일 민선 8기 역점 공약 사항으로 추진한 '화순천 꽃강길 조성 사업 준공식' 행사에 야경이 아름다운 보도교와 수막 영상(위터스크린)을 활용한 영상 퍼포먼스

등 음악이 함께하는 화려한 분수 쇼를 선보였다.

이날 준공식은 신정훈 국회의원, 구복규 화순군수,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유기준 도의원, 임지락 도의원, 군

화순군, '화순천 꽃강길 조성 사업 준공식' 성황리 개최

물과 빛, 음악이 어울린 화려한 음악 분수대 본격 가동

의원 10여 명과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하여 환호를 보내는 등 성황을 이뤘다.

화순군은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 심이 공존하는 생태문화 관광 하천을 조성하고자 '23년 2월 착공식과 더불어 사업비 123억 원을 투입했다.

이번에 조성된 음악 분수대는 길이 60m, 폭 10m의 음악 수조, 최대 높이 50m의 캐논 슈터, 681개 노즐과 263개의 LED 수중조명, 빔 프로젝 등 초대형 분수대로 함께 조성된 광장과 관람석, 코스모스 산책로, 화려한 경관·조명은 화순군의 새로운 지

역 명소(랜드마크)이자 군민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음악 분수대 운영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평일 1회(19:00), 주말 2회(18:30/19:30) 시연할 계획이며, 거리 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와 접목하여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야간

경관을 연출해 사진 촬영 명소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준공식에 참석한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천 꽃강길은 화순천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광객과 주민 여러분들이 화순천 꽃강길을 거닐고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경북 안동소주 세계화, 아시아나항공과 협력

안동소주의 차별화된 맛과 향에 호평 일색, 세계화 가능성 확인

경북도는 안동소주 세계화를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협력하여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김포공항 출국장 아시아나항공 VIP 라운지에서 안동소주 시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라운지 이용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동소주 시음을 통해 선보였으며, 스카치위스키보다 200여 년 앞선 안동소주의 우수성에 대한 전시·설명회도 함께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내외국인들은 안동소주의 차별화된 맛과 향이 위스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안동소주의 세계



안동소주 시음회 행사 모습. 이번 행사에서는 라운지 이용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동소주 시음을 통해 선보였으며, 스카치위스키보다 200여 년 앞선 안동소주의 우수성에 대한 전시·설명회도 함께 가졌다.

수출(22년말 53만3천불)했으며, 연말까지 88만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국적 항공사와 협력을 통해 김포공항, 인천공항 출국장 VIP 라운지 입점, 기내 면세점 판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안동소주의 국제적 인지도를 더욱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시음회는 라운지 이용 내외국인에게 안동소주의 뛰어난 맛과 우수성을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안동소주를 국제적 브랜드로 육성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2024대구마라톤대회 마스터즈 참가접수 11월 1일부터 선착순!

대구 랜드마크를 국내외 홍보할 수 있도록 마라톤 코스 재설계



2024대구마라톤대회 4.7 (일) 08:00 대구스타디움 및 시내일원

대구광역시 2024대구마라톤대회 마스터즈 부문 참가접수를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8일까지 3만 명 선착순 모집한다.

대구마라톤대회는 2001년 마스터즈 3km로 시작으로 2007년 풀코스 도입, 2008년 엘리트 부문으로 확대했고, 2009년 국제육상연맹(IAAF) 공인 국제대회로 개최하게 됐다. 2013년 세계육상연맹(WA) 실버라벨 대회로 인증받은 이후, 2023년도에는 국내 유일 골드라벨대회로 승격돼 11년 연속 WA가 인증하는 표준마라톤대회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매년 4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개최되는 대구마라톤대회는 내년에는 4월 7일 개최될 예정이며, 엘리트, 마스터즈 선수, 시민을 포함해 3만 명 이상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 개최 24년째인 내년 대회부터는 집결지와 마라톤 코스도 확 바뀐다. 출발지는 기존 국제보상공원에서 대구 육상의 메카인 대구스타디움으로 변경되며, 같은 코스를 세바퀴 도는 루프코스에서 대구시내 전역을 한바퀴 도는 순환 코스로 재설계했다.

이는 선수들이 반복 구간을 달리는 데 따른 지루함을 개선하고, 아울러 대구시의 주요 명소, 시설 등을 대회 당일 실시간 생중계함으로써 국내외 대구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대회 시상금은 엘리트선수의 경

우 1위 상금이 기존 4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또한, 일반인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부문 1위에게는 상금 150만 원이 지급되며, 풀코스의 경우 단체상, 최다참가상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회 마스터즈 부문 참가자 접수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대구마라톤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되며, 참가종목과 참가비는 풀코스(7만 원), 풀릴레이(4만 원), 10km(4만 원), 건강달리기(3만 원)로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엘리트 선수들과 동일한 코스에서 같은 거리를 뛰고 싶어하는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즈 풀코스를 재편성했고,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5일 12일간 풀코스 사전접수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1,600여 명이 이미 신청을 완료했다.

참가접수 기간 중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대회 붐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골드라벨' 대회로 운영되는 대구마라톤대회를 통해 최근 위축되고 있는 위상을 더욱 높이는 대구 대표 스포츠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한민국 대표축제 '청송사과축제' 개막, 사과향 가득한 청송읍 용전천으로 놀러오세요!



대한민국 대표축제 '청송사과축제'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청송읍 용전천(현비암 앞)에서 개최된다.

제17회를 맞은 올해 청송사과축제는 '청송사과, 찬란한 금빛 향연'이란 주제로 열리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을 배경으로 청송사과의 수확철을 맞아 풍성하고 다채롭게 꾸며진다.

특히 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산소카페 청송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슬로시티', '산소카페 청송정원' 등 최고의 청정 관광도시를 더욱 부각

시키고, 용전천 현비암 주변 자연경관에 빛을 수놓은 야간 경관조성사업을 축제와 연계해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축제장을 만들었다.

또한 청송사과축제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송꽃줄거리 경연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하고 최우수상 시상 훈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격상시켰으며, 개군 600주년을 기념하여 청송도호부사 퍼레이드도 선보여 완성도 높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문객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축제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사과선별 로

또, 꿀잼-사과난타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했으며,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풍성한 공연과 주민들이 펼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 전국고교장사씨름대회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준비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는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편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장을 만들 방침"이라며, "가족, 친지들과 함께 놀러 오셔서 가을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청송사과축제'를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계절근로자 출국 환송

영양군은 지난 6월 2일 베트남 화방군에서 입국한 MOU 2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5개월간 농작업을 마치고 10월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MOU 2차로 입국한 198명의 화방군 근로자 가운데 152명은 이날 출국했고, 35명은 농가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오는 11월 29일에 출국할 예정이며, 11명의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출국했다.

이들은 E-8비자로 입국했으며 5개월간 상추, 고추, 사과 수확 등의 농작업에 종사하여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영양군은 올해 MOU 방식 540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119명 등 총 659명의 근로자가 들어왔으며, 이

들 중 단 한 명의 무단이탈자도 발생하지 않아 관리 능력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수확기 인력난 해소와 함께 인건비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내년에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 관계자는 "올해 계절근로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농가와 근로자 모두 사업 만족도가 높았으며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농가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작성한 설문지를 통해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물가 안정 프로젝트 실시

의성군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슈퍼푸드마늘축제를 맞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축제 할인쿠폰과 의성사랑상품권 지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행사는 축제장 내 홍보부스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제 방문객은 인증샷과 해시태그를 함께 개인 SNS에 올리면 마늘축제 할인쿠폰(2,000원권 3매)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축제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하여 의성 농산물 등 5만 원 이상 구매하고 개인 SNS 인증샷(해시태그 포함)과 영수증을 인증한 사람에게 의성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를 지급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마늘축제 할인쿠폰

(1일 2,000매)과 의성사랑상품권(총 1,600매)은 각각 선착순 한정 지급되며 기간 중 축제장 내 상가-부스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의성사랑상품권은 가맹점만 사용 가능)

군은 축제 행사와 더불어 물가 안정 프로젝트로 의성향토 할인쿠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성 방문객과 여행객은 쿠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27,000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할인쿠폰과 의성사랑상품권 행사를 통해 축제 방문객이 물가 부담 없이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라며 "물가안정을 위한 의성향토 쿠폰도 적극 이용해 보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부산형 전세사기피해 대응 위해 지역의 부산은행 대출 조건 완화 및 금리우대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서지연의원, 시의회에서 '부산 전세사기 피해 대응 간담회' 개최



부산에서 새롭게 대두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발 전세사기피해와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틈새 지원을 위해 지역은행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23.10.31(화) 오후 1시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고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하여 '부산 전세사기 피해 대응 간담회'를 개최

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을 비롯해 부산시(주택정책과, 건축총괄과), 소방재난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은행, 그리고 부산참여연대 등에서 참석하여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과 구체적 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하여 이단비 전세사기부상피해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현황 지원사업과 특별법은 여전히 제한적 이고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에 적극적 개선과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지연의원은 특별법과 제도적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부산은행에서도 현안에 관심을 갖고 대응에 동참하는 ESG경영 차원에서 부산은행 전용 '부산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대출 조건 완화 및 금리우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서지연의원은 우선 △전입신고 없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은행의 별도 확인을 통해 대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재 특별법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대한대출 상품 마련과 △기존 전세 대출상품 해당자 금리인하(3.5~4%)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단전·단수·승강기·소방 등 전세사기피해건물 시설관리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과 이주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현재 부산의 전세사기피해건물은 13개소 462세대이며, 잠정적 전세피해 우려 건물도 62개소 1,903세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의원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이 다수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입장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유능하고 따뜻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비롯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나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피해자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대정부 건의와 함께 부산시와 지역은행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2023년 안동시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안동시 (안동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3 Andong City Social Economy Expo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도산면 복선리 30)

11월 1일(수) ~ 3일(금) 3일간

행사내용

- 안동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운영(상시)
- 안동시 사회적경제기업 부스 운영(상시)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설명회(11월 3일 금)
- 시간: 13시 ~ 16시
- 장소: 2층 208*209호
- 대상: 안동시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시민 누구나
- 내용: 유관기관 사업소개 및 지원제도 안내
- 안동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11월 3일 금)
- 시간: 16시 ~ 17시
- 장소: 1층 1매각실

안동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안동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자리로 사회적기업 44개 사, 마을기업 4개 사가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및 홍보부스 운영, 지원기관의 사업설명회, 사회적경제 유공자 시장 표창 등으로 구성된다. 홍보관과 부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와 기업을 알리는 동시에 유관기관 및 지원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네트워킹 자리를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단위 창업경진대회인 'BETA 페스티벌 2023'과 연계하여 개최하여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다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최근 위축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성장의 발판이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가을맞이 '타임머신 미션투어' 이벤트 시행

가을맞이 한울에너지팜에서 전통놀이 하고 선물도 받아주세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다가오는 5일, 가을을 맞아 '타임머신 미션투어' 이벤트를 시행한다. '타임머신 미션투어'는 한울에너지팜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련한 전통놀이 이벤트로 윷놀이, 투호, 활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의 개별 미션을 통과하면 엽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놀이에서 획득한 엽전으로 뽑기게임에 참여하면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전통놀이 외에도 바람개비 만들기, 마술쇼 등 다채로운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울본부 인스타그램(@hi_hanul)을 참고하거나 한울본부 홍보부(054-785-2942)에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지방소멸대책특위 김창기 위원장, 지역소멸대응특위 참석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 강조

김창기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구성됐다.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소멸 대응방안에 관하여 청주대

홍성웅 교수와 경북연구원 안성조 연구위원으로부터 특강을 듣고, 지역소

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하여 열린 토론을 펼치는 한편, 지방의회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경상북도의회 대표로 참석한 김창기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이며, 궁극적으로 국가 공멸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방소멸 극복의 최우선 과제인 거주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하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의대 신설, 국가전략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 등 현안문제 해결에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대응하여, 살고 있는 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국 지자체 최초 부산시 디자인 과업 '제값평가' 조례 나왔다

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



부산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 디자인기업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제값'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를 냈다. 지역 디자인 기업이 공공영역에서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가치평가를 실현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 31일 지역 디자인업계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공공분야 디자인관련 계약

체결시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순우 시의원과 해양도시위원회 박종철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분야에서 지역 디자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해

과업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역 디자인 업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디자인과업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 마련을 통한 △디자인 품질 개선 △업체 수익성 보장 △건전한 디자인 거래환경 정착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조례 발의자인 이순우 시의원은 "국내 디자인 산업규모가 22조원까지 성장했고 종사자도 35만명에 육박했지만 뚜렷한 정책 지원이 부족해 과업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업계 특성과 디자인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고질적 저가 수, 발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서무성 회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산업디자인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을 공공기관의 책무로 명시하게 됐다"며 "특히 창작료의 산정 및 지급근거 마련으로 창작권과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에 대한 기

청송군, 2024년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 공모사업 선정

2024년도 산소버스(전기버스) 보급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확보



청송군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낙동강수계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청송군 탄소중립을 위한 산소버스 보급 사업'으로 지원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2억원(국비11억, 지방비1억)을 확보하여 2024년부터 전기버스 3대를 구입·보급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명은 도시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의 청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산소버스'로 네이밍 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더불어 관광자원과 연계한 노선을 확대하여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모델을 구축해 나

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에는 주왕산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산소버스 보급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산소카페 청송군'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친화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전기버스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 대표 경주 청소년어울림마당, 성황리 폐막

19개 청소년 동아리 부스 운영, 10개 동아리 공연



경주시는 지난 28일 황성동 타임캡슐 광장 앞에서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인 2023년 경주청소년어울림마당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경북대표 경주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상시적인 청소년 문화 활동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올 4월부터 10월까지 월 1~2회씩 총 8회 운영했다.

이번 폐막식에는 네일아트, 물리탐구, 이동상담실 등 19개 청소년동아리 체험부스 운영과 밸리댄스, 난타, 무용 등 10개 청소년동아리 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그간 어울림마당은 지역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로 많은 이들이 건강한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배경계 아동청소년과장은 "매회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성황리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문경시, 2023 정보화마을 농수축산물 한마당



전국의 우수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정보화마을 농수축산물 한마당' 행사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문경시민 및 문경새재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착한소비·착한마케팅'을 주제로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문경시, 11개 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정보화마을(90여 마을)이 참여하여 각 마을의 우수 특산품을 선보인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

는 지역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할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직거래 장터이다. 특히 마감특가 세일, 정보화마을 육선 등을 통해 전국의 우수 특산품 할인 행사와 시식행사가 진행되며, 개별 마을 부스와 무대에서는 고객참여 이벤트가 풍성하게 진행된다. 이 밖에 전국 정보화마을 농수산물 및 체험상품은 정보화마을 인빌쇼핑과 인빌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현/기자

대구광역시, 소림피스킨병 차단을 위해 팔 걷었다!

관내 모든 소 사육농가 855호, 27,000여두 대상



대구광역시는 총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국내 첫 발생(10.19.)이 확인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 중인 소림피스킨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백신접종을 지역 내 모든 사육농가 855호, 27,000여두 대상으로 11월 1일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소만 감염되며 고열, 식욕부진, 우유생산량 감소를 동반한 피부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며 아직까지 대구 및 인접 경북지역에 의심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없다.

림피스킨병은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 발생 시작으로 10월 30일에는 경남 창원에서도 추가로 발생이 확인돼 현재까지 8개 시도에서 67건(10.30.기준)이 발생했다.

이번 긴급 백신은 대구시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가 접종 대상으로,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해 공수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백신접종지원반

(14개반, 38명)을 편성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50두 이상의 전업농가의 경우 농장주가 자가 접종을 실시하게 되며, 5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의 경우 공수의 등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에서는 앞서 국내 첫 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된 직후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축 방역차량, 축협 공동방제단 및 보건소 방역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농가 주변의 바이러스 제거, 전염병의 주요 전파 매개체인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 등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안중군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긴급 백신접종을 통해 항체가 형성되는 3주까지가 림피스킨병 유입방지의 분수령으로 축산농가의 신속한 백신접종 협조, 소 농가주 모임자체 및 농장내외부 소독 등 자발적인 차단방역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읍,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가을애" 생필품 꾸러미 지원

영양읍행정복지센터는 10월 31일 11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에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필품 꾸러미는 영양읍 관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되어 보호 중인 19가구에 전달했고, 꾸러미는 쌀, 식용유, 간편식 등 식생활에 필요한 11개 품목으로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영양읍 맞춤형복지팀에서 각 사례관리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하고 안부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생필품 꾸러미를 받으신 이○○ 어르신(남, 80세)은 "몸이 불편하여 집안에서만 거의 지내고 있고 외출하기가 두려웠는데 이렇게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

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생필품꾸러미 지원으로 통합 사례관리대상자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고 사회적 지지를 받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덧붙여 "꾸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과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생활원에 국화전시회 열다!



울진군은 지난 28일, 29일 양일간 대화면에서 개최한 제2회 울진 웹툰영화제에서 '2023 생활원에 전문 기술교육' 교육생들이 정성들어 가꾼 국화 분재 60점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회는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가을 정취 가득한 국화의 매력을 선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2023 생활원에 전문 기술교육은 국화 분재에 관심 있는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국화 분재 전문기술 강사를 초빙하여 3월부터 8개월간 총 11회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병행한 교육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체계적인 분재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창의적인 국화 분재가 출품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을 아름답게 하고, 울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경북도, 경북 청년 성공을 위한 청년정책 보고회 개최!

2023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 도청 동락관서 개최

경북도는 10월 31일 14:00, 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의 5개 분과위원회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정책참여단 위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도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청년 등 90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은 지난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과 청년을 아우르는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분과별 신규 발굴 정책 발표와 토론프로그램을 통한 네트워킹, 향후 운영 방향 논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프로그램에는 KBS 26기 공채 개그맨 겸 30만 유튜브 일일 씨가 강연자로 나서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법'이란 주제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과 성원을 이끌어냈다. 이날 청년정책참여단은 △청년 사회

업 △글로벌벤처 컨벤션(벤처플랫폼) 개최 △문화 향유 격차 감소를 위한 문화예술 디자인 허브(CAD HUB) 구축 사업 등 총 6건의 신규 청년 정책을 제안했다.

경북도는 신규 제안 정책에 대해 실무부서의 협의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도청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상북도는 청년 중심의 정주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시대 5대 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제안한 정책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삶의 변화를 직접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농산물축제서 모범음식점 대표메뉴 전시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 '용궁순대 시식하고 가세요'



예천군 외식업지부(지부장 장인동)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모범음식점 대표메뉴 전시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부스를 운영

한다. 이번 행사는 모범음식점 16개소의 대표메뉴 설명과 함께, 실물 음식을 전시해 예천 음식의 멋스러움을 선보이며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대표 음식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3일간 매일 오후 3시에는 예천의 대표 먹거리이자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용궁순대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미각을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민들이 직접 식중독 예방, 음식 덜어 먹기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천서약 사과나무' 이벤트도 진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를 홍보할 예정이다.

장인동 외식업예천군지부장은 "2023 예천농산물축제서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예천의 대표 음식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외식업소의 위생관리, 좋은 식단 자율 실천 등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 CCTV 통합관제센터, 실종자 골든타임 '결정적 역할'

휴대전화도 없이 실종된 치매 어르신 30분 만에 찾아

영덕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30일 오후 7시경 영덕경찰서 수사과로부터 실종된 치매 어르신의 수색 협조요청을 받은 지 30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해 안전 귀가에 일조했다.

해당 실종자는 영덕읍에 거주하는 81세 치매 어르신으로, 당시 고령에 휴대전화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경찰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영덕군 관

제요원들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실종자의 거주지와 인상착의 등의 설명 듣고 이를 토대로 900여 대의 CCTV를 집중적으로 관제한 결과 실종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었다.

영덕군 CCTV 관제센터는 2019년 2월 개소해 지역의 안전과 치안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실종 치매 어르신을 조기 발견해 귀가시키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태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영덕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 등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예(禮)와 효(孝)를 배우다! 봉화군, 청소년 명륜교실 운영



봉화군은 지난 10월 30일 영주시 한국선비문화수원원에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4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 명륜교실'을 운영했다.

명륜교실은 요즘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예절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했다.

이번 명륜교실은 선비문화수원원 지도원들의 지도하에 심신단련을 위한

궁중 체험, 예와 효를 배우는 사자소학, 선조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천연염색, 떡메치기(전통음식)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프로그램 중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을 익히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윤근수/기자

박현국 봉화군수는 "청소년들이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가치 있는 우리의 문화와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올바른 전통의식 확립과 심신수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주사랑상품권 예산소진에 따른 할인판매 중단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할인 판매 재개시까지

경북 영주시는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실시한 영주사랑상품권을 할인지원 예산 조기 소진으로 11월 1일부터 할인 판매를 중단한다.

영주사랑상품권은 구매금액의 10% 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영주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2019년부터 발행된 영주사랑상품권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에 효과 노릇을 해왔다.

영주시는 올해 영주사랑상품권을 9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59곳에서 할인판매를 진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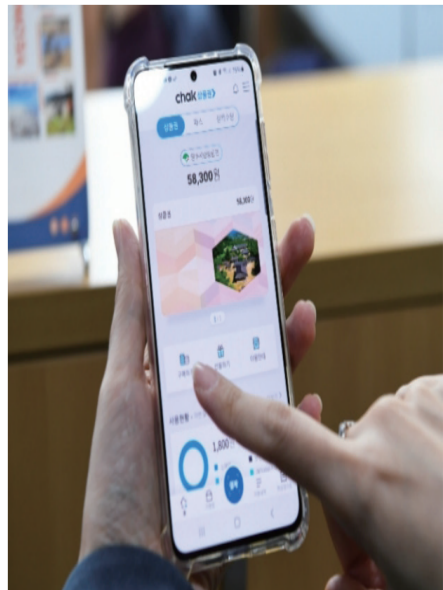
예산 조기 소진의 원인은 2023년 코로나 위기경보 하향에 따른 대면소매의 증가, 설 연휴 구매 한도 상향으로 인한 영주사랑상품권 판매량 및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

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10% 할인 혜택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영주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 1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단, 할인 없는 일반 구매는 중단없이 가능하다.

현재 영주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수는 5516곳으로 마트, 음식점, 약국 등 다양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장문화/기자



충남도, 이차전지 등 5개사 5억 3500만\$ 유치

‘유럽 순방’ 김태흠 지사, 독·영 등 5개국 기업 대표 등과 협약



민선8기 힘센충남이 5개국 5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5억 달러 이상의 외자를 유치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기업 투자 유치 규모는 민선8기 출범 이후 15개월여 만에 16조 원 돌파를 넘보고 있다. 유럽을 방문 중인 김태흠 지사는 31일(이하 현지 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타이겐베르거 호텔에서 글로벌 5개 기업 대표, 박상현 천안시장·이완섭 서

산시장·오성환 당진시장 등과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5개 기업은 스벨기에 유미코아 스네덜란드 A사-두비원(대한민국) △북미 B사 △독일 바스프-한농화성(〃) △영국 C사-SK지오센트릭(〃) 등이다. 이들 기업은 천안과 서산, 당진 등 3개 지역에 총 5억 3500만 달러를 투자해 제품 생산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은 국내 대기업 등에 생산품을 납품하고, 충남을 거점으로 해외 판로를 넓혀 나아가게 된다. 5개 기업의 투자에 따른 국내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총 430명이다. 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에 따른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적 효과는 수입 대체 효과 5400억 원, 생산 유발 효과 1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800억 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관문과 같은 곳인데, 오히려 이곳에서 유럽 기업들의 투자를 받게 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며 각 기업의 충남 투자 결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독일 속담에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라며 “충남과 함께 24년 동안 성장과 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유미코아를 비롯, 각 기업의 성공적인 충남 투자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민선8기 출범 이후 유치한 국내외 기업 수는 105개사, 금액은 15조 9558억 원으로 늘게 됐다. 최정근/기자

김해시민 11월부터 포항~울릉도~독도 여객선 운임 할인

김해시, 대저해운(주)과 업무협약 체결

김해시는 향토기업 (주)대저건설의 자회사인 (주)대저해운이 운영 중인 포항~울릉도~독도 여객 노선의 운임을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할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해시와 대저건설의 업무 제휴로 성사된 관광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11월부터 울릉도 방문 시 주중, 주말 할인을 적용 시 좌석에 따라 1만 5,900원에서 최대 8만5,000원(편도 기준)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김해시민이 관내 관광시설 이용 시 제공되는 할인 서비스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울릉도 여행 시 직접적인 여행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현재 (주)대저해운이 운항 중인 포항~울릉도, 울릉도~독도 노선은 (주)대저건설이 2014년 2월 (주)대저해운을 설립해 운항을 개시했으며 지난 6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3,158t급, 970명)’ 대형 초고속선 투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운항환경을 구축해 국내 해상여객의



세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주)대저건설은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1996년 고 박순규 회장의 칠암도서관 기부를 시작으로 2019년 태권도단 창단을 통해 올해 목포시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김해시를 주 개최지로 하는 제 105회 전국체전을 위해서도 몰심양면

으로 노력하며 향토기업으로서 김해시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황태용 시장은 “김해시민 운임 요금 할인 협약 체결로 김해시민이 울릉도 방문 시 여행경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충북 화장품, 이역만리 멕시코를 물들이다

도내 화장품기업 중남미 수출발판 마련을 위해 화장품·미용박람회 참가

충청북도와 기업진흥원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멕시코 엑스포 뷰티쇼 2023’에 도내 화장품 관련 수출유망 중소기업 5개 기업이 참가해 74건 1,590만 달러의 바이어 상담과 28건 739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26회째 개최된 ‘멕시코 엑스포 뷰티쇼 2023’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미용 박람회로 300개의 프로페셔널 쇼, 네일아트대회, 80여개의 교육세미나 등이 진행되며, 북미경제권의 핵심 국가로 떠오르는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점에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중남미는 색조화장품, 네일, 헤어제품 등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나 K팝, K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으로 스킨케어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충북도 공동관에는 레보아미(천연보톡스 앰플), (주)데주벤트(에스테틱 필러), (주)젠스인터내셔널(안티에이징 솔루션), (주)케이피티(클렌저/크림), 이노스킨(주)(선크림) 5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참가업체 중 2개 기업이 4건 7백27만 달러(한화 98억) 규모의 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선보이며 중남미 시장에 대한 충북 화장품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에서 큰 의미를 두었다. 그중 청주에 소재한 (주)데주벤트는 초기 창업기업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제품 경쟁력과 사전 준비를 통해 콜롬비아 소재 다국적 화장품 유통전문 기업인 Closter Pharma와 5백만불(67억) 규모의 에스테틱 필러 현장 MOU를 체결했다. (주)데주벤트 김진영 이사는 “콜롬비아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식약처에서 제품 허가를 획득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했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준 충북도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주에 소재한 레보아미는 뿌리는 천연보톡스를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여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그 결과 페

고성군,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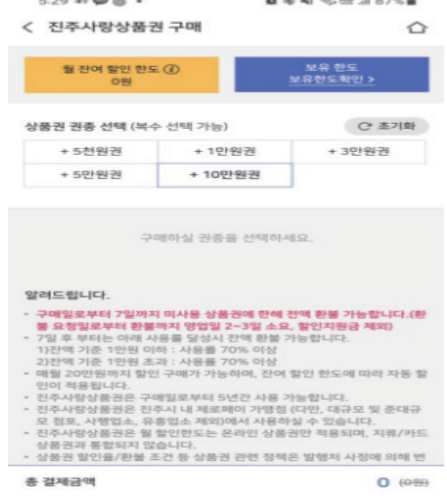
고성군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고성군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13백만 원(23년 8월말 기준)으로, 12백만 원(92%)이 자동차세, 1백만 원(8%)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외국

인 체류지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정비 후 체납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군은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이 자동차세인만큼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해 외국인에게 지방세 납부 의식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진주시, 11월 1일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90억원 발행

1인당 월 20만원까지 10%할인 구매가능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진주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1월 1일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90억 원을 발행한다. 이번 발행은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은 올해 7차 마지막 발행분으로,

11월 1일부터 소진 시까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해 구매 가능하다. 올해 진주사랑상품권은 지난 1·3·5·7·9·10월 6차례 670억 원이 발행되었으며, 11월 발행분까지 포함하면 총 760억 원이 발행된다. 진주사랑상품권은 가맹점주에게는 수수료 없고,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어 가맹점 수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발행규모도 2019년 10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2023년 760억 원까지 확대됐고, 가맹점도 증가하여 2019년에 지류 1000여 곳에서 2023년에는 지류 5000여 곳, 모바일 2만여 곳으로 늘었다. 또한 지난 9월 15일부터 판매한 지류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은 진주시와 산청군 일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현재 소액 남아 있으며,

올해까지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구매가능 잔액은 진주시 누리집 ▶ 진주사랑상품권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내년 9월 10일까지이다. ‘진주형 배달형 전용상품권’은 2023년 1월부터 할인이 10%에서 15%로 상향되어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확대됐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주형 POS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배달의 진주’ 앱에 등록된 가맹점에 월 2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이나 진주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으로 발행되는 상품권이 지역경제의 소비촉진 촉매제로 골목상권을 살려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가장 한국적인 곳

경북

한국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 석굴암

불교 건축의 정수

역사와 문화의 고장길

문경 새재

노블레스 오블리주

안동 임청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경북에 이런 유서 깊은 명소가!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사진 출처: 문화재청

충남도, 품목별 농업인 역량강화결집 다짐

도 농기원, '제3회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 개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31일 청양 군민체육관에서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연합회와 함께 '제3회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힘센충남농업! 품목농업인의 힘으로!'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을 대표하는 품목농업인연구회의 품목별 역량 결집을 다짐하고 정보 교류 및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정광선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장을 비롯해 도내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품목연구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농업기술명인 시상,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연합회가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800kg)을 도에 기



타하는 나눔 행사도 진행해 의미를 더 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우수 농·특산물 품평관을 운영해 행사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영환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장은 "품목농업인연구회는 1999년 출범해 각 품목의 지혜를 모아 농산물의 가치를 혁신하고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왔다"라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품목별 경쟁력을 높여 힘센충남농업을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업·농촌을 위해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와 함께 소통하고 농가와 농민의 소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회연합회는 품목별로 조직된 농업인 연구모임 연합체로 품목별 기술 공유와 협업 경영을 실천하고 산지 조직화로 시장교섭력을 확보해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 규모는 1만 5000여 명에 달한다.

최정근/기자

아산시, '100인 100색전' 시민 참여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아산시가 오는 11월부터 '100인 100색전' 시민 참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시민 참여 연계 프로그램은 100인 100색전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슨트 작품 해설 프로그램, 미술 치유 프로그램, 음악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도슨트 작품 해설 프로그램은 도슨트의 재미있는 미술 이야기, 작품 감상 투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미술 치유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 청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했으며,

음악공연은 지역예술인이 참여해 현악, 재즈, 통기타 등의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시 관계자는 "눈과 귀가 즐거운 종합 예술로 100인 100색전을 찾은 관객들이 '문화예술의 도시 아산'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정호 일원 카페갤러리 26개소에서 12월 25일까지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신정호 국제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운영 중으로, 이번 시민 참여 연계 프로그램은 시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김원호/기자

100인 100色展
시민 참여 연계프로그램

프로그램
① 도슨트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② 미술치유 프로그램(청각장애인 대상)

참여방법
일정별 카페(장소) 확인
QR코드 스캔 후 신청 ☎010-4826-0566

폐특법 연장 기금 상향 조정, 태백시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선다

2021년 3월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특법 시행가 2024년에서 2045년까지 20년 연장됐다. 또한, 폐광기금 산정 기준이 순이익에서 카지노 매출액의 13%로 변경되며 폐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2023년에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배분액 193억 원 대비 52억 원이 증가한 245억 원(26.9% 증액)을 배분받았다.

태백시는 폐특법 연장과 폐기금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선다. 지역현황 및 개발 여건 분석을 통해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마을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관광진흥 분야와 같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태백시의 계획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철규 국회

의원이 발의한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된 만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확대, 대체인업의 육성과 기업 이전 지원, 경제성 높은 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천안시, 2393억 투자유치...글로벌 기업 3개사와 협약

천안·백석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 신·증설 및 R&D센터 신설



유럽 투자 유치에 나선 천안시가 2,393억 원 규모의 생산공장 R&D 센터 등을 유치했다.

천안시는 31일(현지시각) 충청남도 가 주관하는 독일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한 가운데, 유럽 및 캐나다에 소재한 글로벌 외투기업 3개 사와 총 2,393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박상돈 천안시장과 김태홍 충청남도지사, 각 기업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3개 기업은 천

안 백석 외국인투자지역과 천안5 외국인 투자지역에 생산공장 신·증설 및 R&D센터를 신설한다.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업체인 U사는 천안 백석 외국인투자지역에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시설을 증설함과 동시에 이차전지 R&D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네덜란드에 소재한 스마트팜 단백질 사료 제조업체인 P사는 국내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천안5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예정지에 생산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캐나다에 소재한 W사는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천안5 외국인투자지역에 친환경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공장을 신축한다.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외자유치 국외 출장길에 오른 박상돈 시장은 이날 투자설명회에서 한국 진출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투자상담 등을 진행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환경에서도 이번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향후 지속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원주시보건소'건강 걷기 챌린지'운영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30일간 17만 보 걷기

일상 속 걷기 실천프로젝트~
원주시보건소와 함께하는 건강 걷기 챌린지~

참여기간: 2023. 11. 6. ~ 12. 5. (30일간)
참여대상: 워크온에 가입한 모든 원주시민 및 관내 사업장 근무자 (타 지역민 참여불가)
참여내용: 챌린지 기간동안(30일) 17만보 달성한 선착순 200명에게 기념품 지급(제한없음) *1일 7,000보 제한
신청방법: 챌린지 신청 시 휴대용 위치가 원주시 내에 있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워크온 어플 설치 후 원주시보건소 워크온 커뮤니티 가입 원주시보건소[건강 걷기 챌린지-]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응답하기' 버튼 선착순 200명에게만 워크온 성공 기념품이 지급됩니다.
문의사항: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737-4067 원주시보건소

원주시보건소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 걷기 습관 생활화' 동기부여를 위해 원주시보건소 워크온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건강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른 후 휴대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된다.

김진희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일상 속 걷기를 실천하고 건강한 걷기 습관을 만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환/기자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일 걸음 수는 7천 보까지 인정된다.

30일간 17만 보를 완보한 참가자 중 선착순 200명에게 완보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았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대전, 세종, 충북 3개 시, 도지사는 31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공동 발표하면서 일제히 환영에 뜻을 밝혔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역을 시작으로 세종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형사업이다. 2021년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같은해 11월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금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까지 선정되면서 사업 착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광역철도는 시, 도의 행정경계를 넘

어서서,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생활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업인 만큼 그동안 각 시, 도에서는 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특히 올해 9월 13일 충청권 4개 시, 도지사가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추진을 정부에 공동건의 하는 등 충청권 연합을 통해 지역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3개 시·도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사업 타당성 검증과 평가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춘천시, 중단없는 배움, 삶을 풍요롭게 하는 평생교육

춘천시 평생학습관은 배움을 위한 열정을 가진 시민 누구에게나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 등 총 99개 교육과정에 약 2,900여 명의 수강생이 학습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 약 3,100여 명의 학습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수강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수강생을 대상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91.7%가 교육과정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만족도 91%, 향후 다른 강좌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도 93.5%로 나타났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인'춘천시민

약초학교'(23년 수강생 30명)는 관련 자격증인 '약초관리사'에 2년 연속 응시자 100%가(23년 17명) 자격을 취득해 수강생 사이에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과정별로 학습동아리를 꾸려 지속적인 학습 동기 제고와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학습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제빵, 양재, 한식 등 각 분야에서 올해에만도 117회 이상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내년도 '평생교육도시' 재지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특화사업을 보강해 '시민에게 힘이되는 평생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영통구 공중이용시설 금연 집중 단속



수원시 영통구보건소가 11월 10일

11월 10일까지, 영통구 공중이용시설 중 금연구역 9146개소 단속 예정

까지 영통구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 지역은 영통구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구역 9146개 소다. 영통구보건소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점검 및 성인인증 장치 부착 상태 확인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 확인 시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상층 민원 신고 구역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금연 구역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금연 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면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10만원,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위반하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범상/기자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을 위한 지원 실천사례 공유...31일 포럼 개최

서울시복지재단 31일 오후 2시 '2023 제4차 장애인 자립지원 포럼' 개최



(화) '제4차 장애인 자립지원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무자의 현장이야기: 발달장애인지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현장 실무자라면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이메일로 자료집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재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어 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과정 및 방법을 사례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강진숙 중앙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의 '최중중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김진래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의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 긍정적 행동지원', ▲박지훈 어울림아동발달연구소장의 '성인 발달장애인 부부의 일상생활 지원: 가정생활과 양육지원' 사례발표가 이어진다. 강진숙 센터장은 개인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당사자 지원 방향과 방법

등 개인별 지원계획의 운영과정 전반을 발표한다. 김진래 팀장은 성인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이해하기 위한 사정방법·당사자의 변화·기록의 활용 등을 살펴본다. 박지훈 소장은 작업치료중재과정모형을 소개하고, 작업치료사의 관점에서 본 발달장애인지원사업과정·방법에 대해 공유한다. '장애인 자립지원 포럼'은 '22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 5월 17일 '장애인 자립지원'을 주제로 열린 제3차 장애인 자립지원 포럼은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유연희 자립지원본부장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와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 이해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장 실무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본 포럼을 통해 개별화된 지원과 실천에 대한 실무자들의 고민과 생각을 깊이 있게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해남군, 원산지 속여 '해남배추 둔갑' 꼼짝마!

다음달 말까지 절임배추 원산지 표시단속 "명품 해남배추 위상 지켜라"

해남군은 김장철을 맞아 11월말까지 관내 648개 절임배추생산시설에 대해 배추, 소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로서 '명품 해남배추'의 명성을 지키고 불량 절임배추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에서는 타 지역 배추를 해남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영업 등록 없이 절임배추와 함께 김치양념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한 절임배추 생산업체 대상 원료관리, 위생관리, 작업환경관리, 작업자관리

등 절임배추 생산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후 내년 절임배추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앞서 해남군은 읍면 절임배추협의회장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준수와 깨끗하고 위생적인 안심 먹거리 생산을 위한 생산농가의 결의대회도 가졌다. 군 관계자는 “해남배추의 명성을 이용하고자 타지역 배추가 해남배추로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



예정이다”며 “해남절임배추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생산농가 스스로 해남산 배추로 절임배추 생산에 노력하자”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품질과 위생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갑문/기자

경산시, 2023 경북 청년박람회 행사장 안전 점검

관람 예상인원 1만 명, 구급·순찰 차량 근접 배치 등 대응 태세 구축



경산시는 지역 청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2023 경북 청년박람회 행사'에 1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31일 행사장과 주변 시설에 대해 합동 안전 점검을 했다. 이날 재난부서, 소관부서,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행사장 화재 예방대책, 교통

소통대책 등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되도록 분야별로 빈틈없는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임시 설치 시설물과 행사장 공간 배치, 행사장 주변 무대 소화기 비치 여부, 미 규격 전선 사용 등 화재 위험 요인 관리 여부, 비상 대피로 확보와 질서유지, 교통 대책 등 안전사고 위험 요인 관리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사 개최 전까지 해소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 운하, 테이 등 인기 가수들이 공연하는 만큼 자칫 들뜬 분위기로 인해 대규모 인파가 일시에 근접할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경찰차를 근접 배치하고 행사 중 현장 상황실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즉시 출입 통제, 질서유지, 상황관리, 피난 유도, 현장 수습 등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태세를 구축하고 행사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류진열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에는 예외가 없듯,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과거 기준·관행이나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각별한 대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송광삼/기자

울산 남구, 민·관 합동점검으로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개소 적발

울산 남구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민·관 합동점검으로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환경단속공무원 6명, 환경모니터요원 4명 등 민·관 합동점검 2개 반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대기, 폐수, 기타수질, 폐기물, 악취, 토양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 배출시설 설치 신

고사항 일치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남구는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 미기록(미보존)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경고2차)과 과태료(200만원)부과 처

분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갑문/기자





제17회 **청송사과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

2023. 11. 1.(수) ~ 11. 5.(일)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

청송사과 찬란한 금빛향연

주최 / 주관 청송군 /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청송군의회, 청송경찰서, 청송소방서, 청송교육지원청, 청송군관내농협, (사)청송사과협회, K-water 청송권지사, 한국수력원자력청송양수발전소, 청송문화원 등

울산교육청, 중·고생 과학기술·인문학 융합탐구 활동 지원

울산교육청, UNIST와 함께 학생 인문학 교실 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밖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중·고등학생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은 최근 2회에 걸쳐 울산과학기술원(UNIST) TD룸에서 중·고등학생 51명과 참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연계 학생 인문학 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적 탐구 활동으로 인간 중심적 지식 활동에 대한 사고와 관심을 확장하고자 마련됐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부 김관명 교수의 주도하에 박사과정 학생과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다.

학생들의 울산과학기술원 방문으로 참여 호응도를 높였고, 학부모들의 참관

도 허용됐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공감 -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을 주제로 1회차는 강의, 2회차는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1회차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주제로 김관명 교수의 강연과 팀별 토론이 진행됐다.

2회차는 팀별 해결안 공유·최종안 결정에 이어 해결안 프로토타이핑(사용자 중심의 개발 방법) 소개, 발표,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팀별 활동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소통하고 발표는 과정이 의미 있었다"며 "특히,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팀 구성원들과 현실에서의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구현하는 실습 과정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전국 최고!

교육부 발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4년 연속 전국 1위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최종 취업률 66.7%(전국 평균 55.7%)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취업률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20년 이후 4년 연속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29.2%(전국 평균 47.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경북의 직업계고가 '취업과 기능



인 양성'이라는 직업교육 방향에 맞게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관련 분야에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시대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맞춘 학과 개편과 학교 재구조화 추진 △지역 특색사업인 경북형 도제사업으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취업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미

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융복합인재 양성으로 가능했으며, 그 중심에 경북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컨트론타워 역할을 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률이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산업 수요에 맞춘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수 기능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 결과"라며 "경북 직업교육이 세계직업교육의 표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교육 환경을 제공해 인성과 기술을 겸비한 기술·기능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포항·구미도서관 건립 청신호!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통과



경북교육청은 포항·구미도서관 건립 사업이 10월 27일 대전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는 지난 정기 1차 투자심사 결과 조직 구성과 인원에 대한 재

검토 등 부대의견을 보완한 재심사로 이뤄낸 성과다.

경북교육청은 27만여 명의 포항시 북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 건립으로 1990년 개관한 영일도서관의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 지진 피해에 따른 건물 균열 등 안전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또한 건립 예정지 반경 2km 이내 12개의 학교와 3만 6천여 세대의 인구 밀집 지역에 독서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1986년 개관 후 37여 년이 경과한 구미도서관도 이번 투자심사를 통과해 건물 노후와 부대시설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4차 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미래 사회 지식 정보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포항도서관은 어린이 영어자료실과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정구역(청소년 정점구역)' 등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색하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넓혀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구미도서관은 맞춤형 어린이 청소년 특화도서관, 금오산 도립공원을 연계한 명품 숲 도서관 등 독서와 사색이 가능한 자연친화적 힐링과 휴식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포항도서관(연면적 6,852㎡) 368억 원, 구미도서관(연면적 7,100㎡) 3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과 2027년 각각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한용 창의인재과장은 "현대적인 도서관 조성으로 우수한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 증대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세종시교육청, 해외의 기술과 문화를 배우며 창의융합인재로 '쑥쑥'

세종시교육청, '창의융합인재 성장지원 국외체험 프로그램' 실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창의융합인재 성장지원 국외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학생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연구소, 기업, 대학과 로스앤젤레스의 과학기관, 문화체험기관 등의 견학을 통해 창의 융합인재로서 국제적 안목을 기르고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프로그램에는 수학, 과학 발명 분야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으며, 이공계 진로를 탐색하는 중·고등학생 20명(중 11명, 고 9명)과 인솔단(중등교사 등) 9명 등 총 29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한국인으로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 초기 기업을 운영하며 위상을 높이고 있는 스타트업 이재형 대표와 엔비디아(NVIDIA) 신준화 기술 이사를 만나 진로에 대해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미국 현지 고등학교인 미션 하

이스쿨을 방문하여 학교 시설에 대한 설명과 미국 고등학교의 진로·진학 지도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다.

이 밖에도 스탠포드대학교, 애플파크, 구글스토어, 엘에이(LA)과학관, 게티미술관,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방문하며 한국과 다른 서구의 기술 환경과 문화를 경험했다.

보람중 이지원(3학년)학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가서도 꾸준히 수학과 기술과학에 관심을 가져 창업동아리나 관련 대회에도 참여하며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과학자들이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김동호 미래교육과 과장은 "책과 언론으로만 접했던 해외의 과학기술 현장과 유명한 대학을 직접 경험해보며 세종의 학생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토대로 더 큰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부산교육청 직원들, 웹드라마로 민원 응대 역량 키운다

부산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관련 웹드라마 제작

부산시교육청이 소속 직원들의 민원 응대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작한 웹드라마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직원들의 민원 응대 교육 내실화와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민원 응대 역량 강화 웹드라마를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실제 민원 사례를 토대로 웹드라마를 제작하면 민원 응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6월 에피소드 공모에 나섰다.

일반시민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를 통해 '팩스민원 응대', '전화민원 응대', '방문민원 응대', '공공시설 이용' 등 4개 에피소드를 선정하고 웹드라마 제작을 마쳤다.

시교육청은 1일(오늘)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부산교육TV'를 통해 웹드라마를 공개한다.

또한, 학생·교직원·시민들의 드라마 시청을 독려하기 위해 에피소드별로 패러디한 영화·드라마 작품명 맞추기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1월 14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2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나눠준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웹드라마는 직원들의 민원 응대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민원인과 공무원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민원응대 역량강화 웹드라마 보고 퀴즈 응모하기

응모기간: 2023. 11. 1.(수) ~ 11. 14.(화)

응모대상: 일반시민 누구나

응모방법: 국민생각함 > 생각모음 > "웹드라마" 또는 "부산교육청" 검색 참여

경품안내: 퀴즈 정답자 중 20명 추첨 1만원 상당 기프티콘 증정

*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고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작성하시면 최종 응모됩니다.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경품 추첨 및 기프티콘 문자 발송에만 사용 후 폐기됩니다.

부산교육TV 웹드라마 시청하기

Ep.1. 팩스민원 응대, Ep.2. 전화민원 응대, Ep.3. 방문민원 응대, Ep.4. 공공시설 이용

전남교육청, 제10회 전남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개최

40개 학교 1,600여 학생 예술로 소통 축제 한마당 펼쳐



전라남도교육청이 10월 31일~11월 3일 4일 동안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2023. 제10회 전남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표준오케스트라, 윈드오케스트라, 국악오케스트라 공연과 뮤지컬, 합창 등의 복합 공연에 총 40개 학교, 1,679명의 학생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장을 꾸민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되고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됐던 행사가 올해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의 한마당으로 펼쳐진다.

표준오케스트라 10개 학교가 무대에 오른 첫날 공연에서는 학교급과 지역이 다른 여러 학교의 무대공연과 관람을 통해 학생들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낸 선율이 감동을 전했고, 지도교사와 지휘자, 지도 강사들도 정보공유의 기회를 가졌다.

공연에 참가한 한 학생은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서는 예술마루의 공연 무

대에서 연주를 하게 되어 조금은 떨렸지만 너무나도 설레고 뿌듯하다."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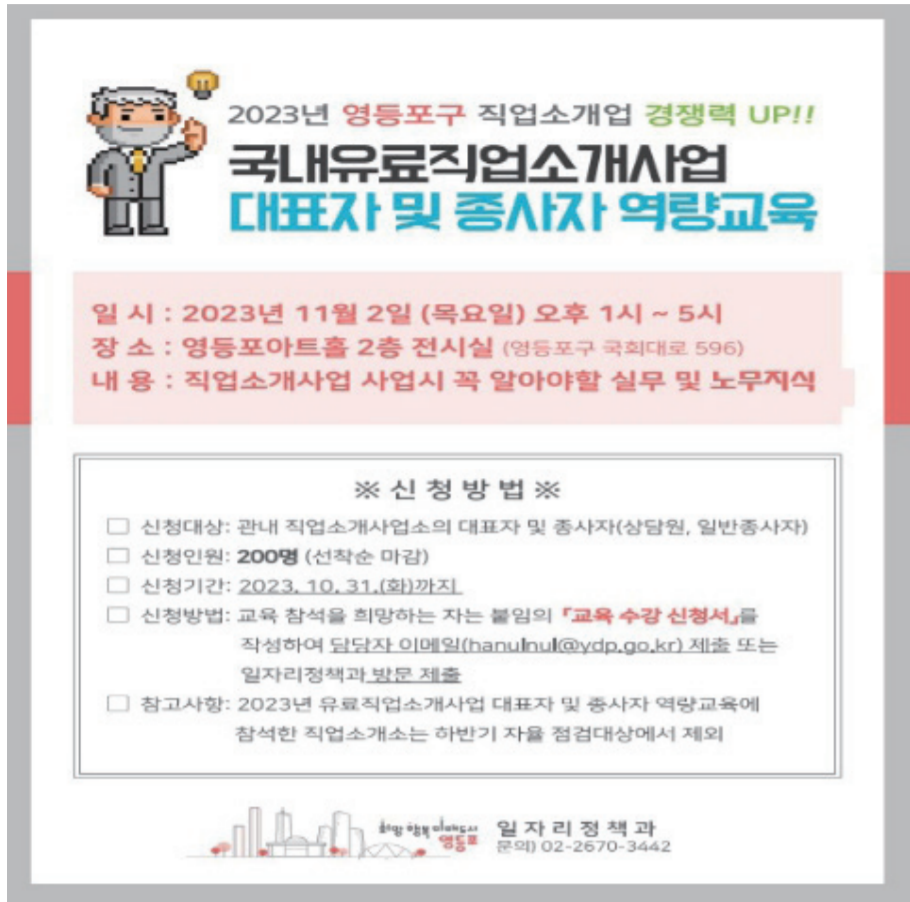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전남중등음악사랑연구회 강창완 회장은 "이 축제는 전남의 학교오케스트라와 음악 동아리가 1년 동안 연습한 결과를 펼쳐 보이는 무대이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예술감성을 키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갖고 닦은 예술적 끼를 발산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미래의 예술인재로 성장하는 꿈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꾸미는 멋진 무대를 지역민과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의 교육공동체로 승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영등포구, 직업소개소 교육으로 고용서비스 품격 높인다

세무 및 노동 실무 지식, 직업윤리, 처벌규정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 진행



2023년 영등포구 직업소개소 경쟁력 UP!!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 및 종사자 역량교육

일시: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장소: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내용: 직업소개사업 사업시 꼭 알아야 할 실무 및 노무지식

※ 신청방법 ※

- 신청대상: 관내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및 종사자(상담원, 일반종사자)
- 신청인원: 200명 (선착순 마감)
- 신청기간: 2023. 10. 31.(화)까지
- 신청방법: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hanulul@ydp.go.kr) 제출 또는 일자리정책과 방문 제출
- 참고사항: 2023년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 및 종사자 역량교육에 참석한 직업소개소는 하반기 자율 점검대상에서 제외

일자리정책과
문의 02-2670-3442

영등포구가 2일 오후 1시, 영등포아트홀에서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을 위한 '직업소개소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것이 빈번해지고 고령화 추세로 직장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는 직업소개소를 찾는 구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직업소개소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네이버 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영상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직업소개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은 2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직업소개 시 꼭 알아야 할 실무지식'을 주제로 진행된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소속의 전문 강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직업소개소 운영에 필요한 세무, 노동법 관련 실무 지식을 전달한다. 이외에도 직업소개제도와 직업정보관리, 불법 직업소개 유형과 처벌규정, 직업상담사

의 역할 등도 안내한다.

구는 이번 교육이 직업소개사업 대표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구직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구민난 해소, 취업연계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후후 구는 교육을 미이수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구인·구직자의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구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는 총 310개로, 이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외국인 고용알선에 특화된 직업소개소와 금융권 고연봉자 헤드헌팅 등 특색 있는 직업소개소도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직업소개소의 고용알선 경쟁력을 높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취업시장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쳐 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박상진/기자

성북구의 문화 자원이 된 구민의 추억을 전시합니다

성북구 곳곳에서 이야기를 수집하는 주민기록단의 활동 기록도 확인



서울 성북구에서 1970년대 초등학교 졸업앨범, 일기장, 1980년대 수험표, 1990년대 어머니학교 글 등 지역 문화 자원이 된 개인의 추억을 다룬 특별한 전시가 개최된다.

서울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이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1층에 마련한 '제3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다.

이번 전시는 제2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총 15명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으로 시작하며, 공모전 출품작과 성북문화원이 수집한 기록물 등 200여 점을 '사람 속 학교 이야기'를 주제로 구성했다.

주요 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수상작인 1970년대 성북초등학교 졸업앨범 등 문서·사진·박물류, 1980년대 우촌초등학교 교지, 1980년대 경

고등학교 수험표 및 견장, 1990년대 월곡동 어머니학교 글 모음집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관련 기록물들이다.

불거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성북구 학교와 추억들' 주제 공간은 공모전에 출품된 학교의 역사와 추억의 사진들, '사람 속 추억들을 꺼내며' 주제 공간은 공모전 참여자의 소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북마을아카이브 누리집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하여 선보인다. 전시장에서 직접 성북의 마을 기록 1만2천6백여 건이 담긴 성북마을아카이브를 태블릿PC로 접속해 다양한 성북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성북구 곳곳을 누비며 이야기를 수집하는 주민기록단의 활동 기록도 볼 수 있다.

성북마을아카이브는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해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담고자 구축한 디지털 기록보관소 공동체의 기록물 보존과 원천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민의 이야기가 담긴 민간기록물을 성북의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북 마을기록 전시를 개최할 것"이며,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성동구 왕십리도선동상점가, 오는 3일 왕도맥주축제 개최

11월 3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왕십리도선동상점가 내에서 열려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상점가에서 오는 11월 3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왕도맥주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서울특별시 '지역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확대하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로, 왕십리도선동상점가 상인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후원한다.

왕십리도선동상점가 내 점포들의 대표 메뉴를 소개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80여 가지 대표 안주를 선보일 예정이며, 상점가 방문 고객들이 안주 구매 시 맥주 무료 교환권을 받아 노상 테이블 및 개별 점포 안에서 즐길 수 있다.

또한 코스모타워(왕십리로 326) 부근에 마련되는 특별무대에서는 DJ와 함께하는 댄스파티 및 마술쇼가 진행되며 초청가수와 댄스팀, 버스킹 무대, 한양대학교 그룹사운드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하여 왕십리도선동상점가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길 바라며, 상인들 간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하여 침체된 골목

상권을 회복하고 더욱 번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3 Nov FRIDAY

왕도 맥주축제

2023.11.03 (금) 16:00~21:00
왕십리도선동상점가 행사무대 (코스모타워 뒤)

왕도에서 널리 다닐게~

DJ와 함께 하는 댄스 파티 초대가수와 댄스팀, 밴드공연 환상적인 마술쇼까지 행사 참여점포에서 안주 구매시 맥주 1잔 무료 증정!

특이다른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왕도축제

후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최·협찬: 왕십리도선동상점가상인회, HALLYU 한류컴퍼니(주), N2 (이)넷스튜디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시행

여권, 안전하게 폐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위해 아예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에 맡기세요!

개인정보 안전하게 폐기하세요!

운영기간: 2023년 11월 1일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근무시간 내
운영장소: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여권민원실

서비스대상: 유효기간이 경과한 구여권을 소지하신분
여권 재발급 신청자 중 반납 처리 여권을 소지하신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기존 여권과 동일한 여권 번호가 있는 경우

준비물: 신분증, 유효기간 경과 여권 또는 효력 상실여권
*본인 신상 사진이 부착된 여권(신상 사진이 부착된 여권은 별도 신청 후 여권번호가 변경된 여권 제외)

문의사항: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 02-2155-6340

서울 서초구는 가정에서 폐기하기 어려운 여권을 반납받아 안전하게 폐기해주는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여권에는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전자칩이 내장된 특수소재로 제작되어 개인이 여권을 자체 폐기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구는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

서비스 대상 여권은 ▲여권 재발급 시 반납 처리할 여권 ▲개인이 보관하

"소중한 나의 '개인정보 안전하게 폐기'하세요" 서초구,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운영

특수소재로 제작되어 폐기가 어려운 여권을 반납받아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운영

고 있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이다. 기존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는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본인의 여권을 지참해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여권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폐기 신청된 여권들은 한국조폐공사에 전달되어 폐기 절차를 거친다. 전자여권이 아닌 전자·부착식 여권(긴급여권)은 구청에서 자체 폐기한다.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은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 여권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상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www.yy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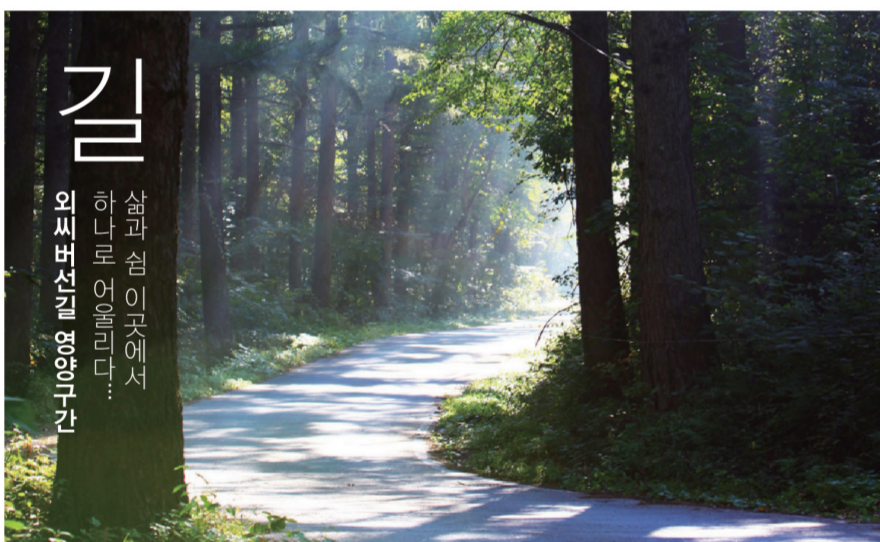
영양 들어다보시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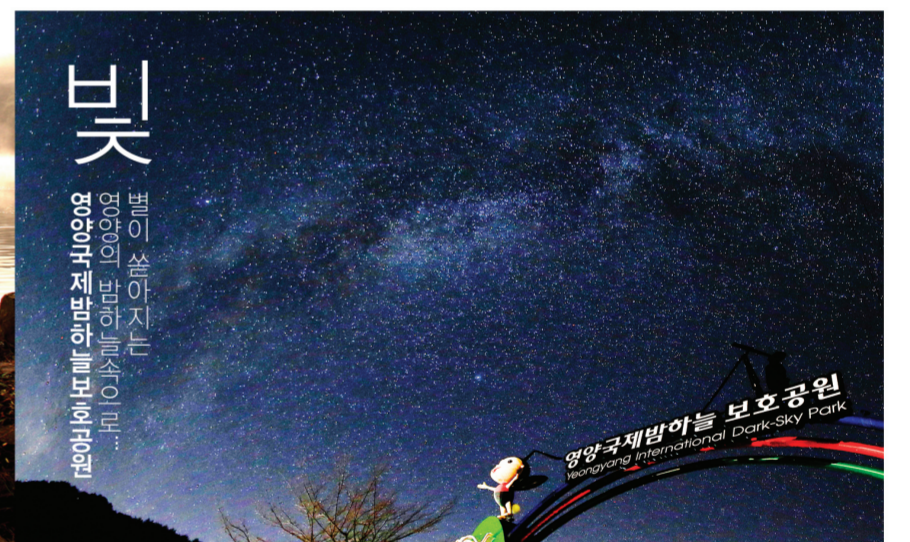
길

살과 숨이 곳곳에서
아니면 언제라도...
의 표지에는 영양나들이



물

영양의 평온하고
은근한 아름다움...
영양나들이는 영양
의 표지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밤하늘을 수놓아...
영양이 빛나는 밤하늘...
영양이 빛나는 밤하늘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식지



맛

사백년째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서식지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